

ISSN 2384-373X  
9772384373001 02



FSC 인증 친환경 종이를  
사용하였습니다.



달서문화재단



# 달서문화만개

Vol.17

(재)달서문화재단 소식지  
Dalseo Culture Foundation



달서문화재단

DALSEO CULTURE FOUNDATION

Dalseo Culture Foundation Magazine — 2023. Summer



달서문화재단



달서문화재단

DALSEO CULTURE FOUNDATION

# CONTENTS

Prologue 4

## 1막 1장

시선  
6

미래를 만들어갈 세 가지 키워드:  
지역, 예술, 그리고 청년\_  
정연우 음악인·공연연출감독

칼럼  
12

청년의 시선으로 바라본 지역의 청년  
문화·예술 정책에서 필요한 것들\_  
신민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옛·날  
18

문화가 권력이고, 취향이 위계였던  
시절에 대한 소고(小考)

오늘  
22

오늘날의 문화예술:  
예술, 일상이 되다

## 1막 2장

달·글  
26

지역 대학 청년들이 세운\_  
무용협동조합 춤날

공간  
30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_  
달서구 청년센터

사람  
34

빛을 담는 작가\_  
박한나

Intermission 38

silent flow\_  
김조은

## 2막 1장

인문  
40

아름다움의 충만,  
명장면 명대사가 주는 힘\_  
김중기 영화평론가

탐색  
44

인공지능 시대의 문화예술

살롱  
48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_  
갤러리 위즈아츠

## 2막 2장

지금달서  
50

DSAF 달서아트페스티벌을  
준비하며

52

주말엔 문화를 이어주는  
생활문화센터로

세상나눔  
54

낮부터 밤까지, 오감으로 즐기는\_  
2023 장미꽃 필(Feel) 무렵

56

가상 세계로 향하는 특별한 공간\_  
달서 메타버스 체험관

다시보기  
58

미리보기  
64

Epilogue 72

Postcard 73



청년이 만들어 가는 문화,  
문화로 피어나는 청년의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발행인 (재)달서문화재단 이사장 이태훈 발행처 (재)달서문화재단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회관길 160(장기동) 2F 문화정책실(053-584-9712)]

편집위원 김영남, 김옥렬, 박경숙, 이성욱, 이창원, 이현창, 임훈, 채재휘, 최현목, 한상만 달서문화만개 2023년 vol. 17 비매품 ISSN 2384-373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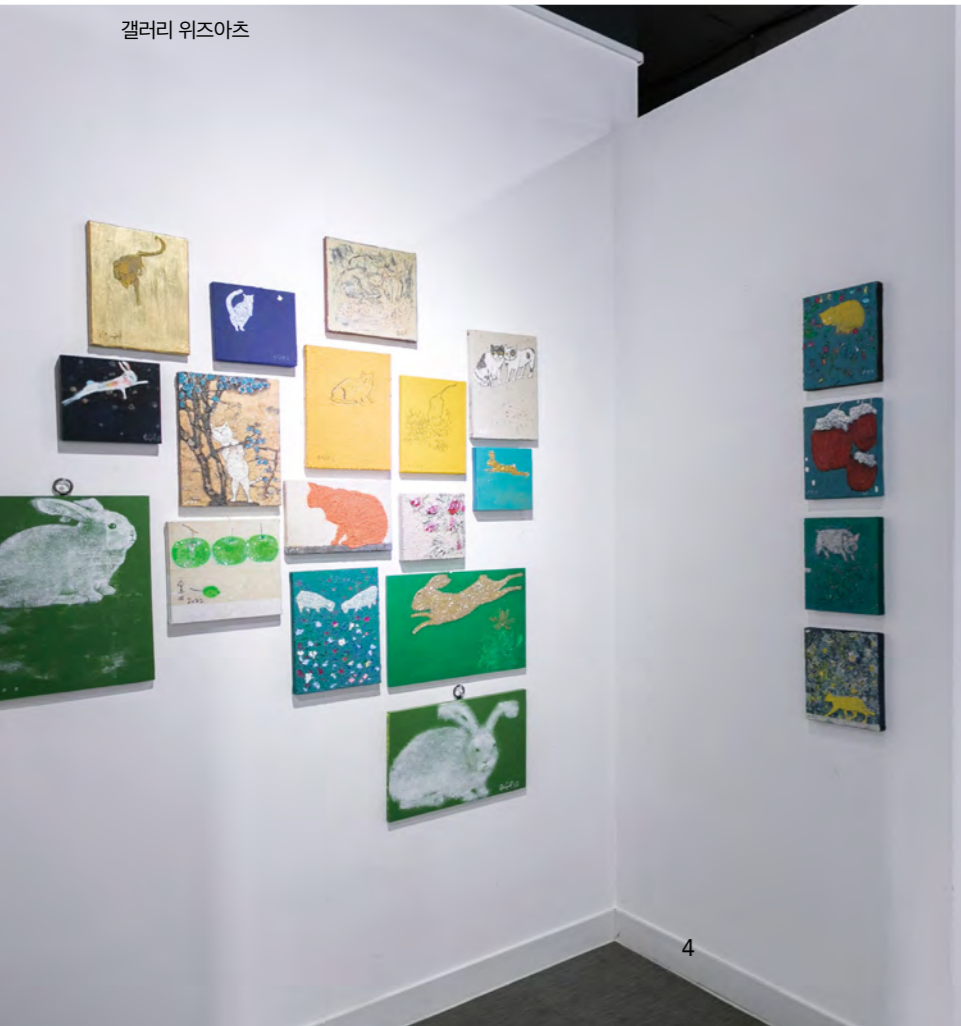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은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달서문화만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재)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로 신청 바랍니다.

www.dscf.or.kr



지역 × 청년 × 문화

갤러리 위즈아츠



달서구청청년센터

지역 문화의 기반은 청년에서 비롯된다.  
문화를 창조하는 핵심적인 역할은 청년이다.

지역은 청년에게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청년은 지역을 활동의 장으로 만들어간다.

# 미래를 만들어갈 세 가지 키워드

지역,  
예술,

그리고

청년

## # 나의 이름은 '로컬 뮤지션'입니다.

저는 조금은 늦은 30대 초반의 나이에 나고 자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지역음악인'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제 가슴을 가장 뛰게 만드는 두 단어인 '음악'과 '지역'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그를 통해 얻게 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는 지역과 예술의 가치를 이해하는 새로운 세대와 세력들이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 # 예측불가능한 세상의 변화, 그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것

현대 사회, 특히 한국 사회는 예측이 힘들 정도로 빠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인구감소라는 시대사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출생률의 급격한 감소와 사망률의 가파른 하강으로 인해 유례없는 고령화와 미래동력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경험 중입니다. 산업현장에서는 로봇이나 AI들이 인간의 역할을 벌써부터 대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챗GPT같은 새로운 AI들이 언어를 넘어 그림, 음악 같은 예술의 영역까지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공상과학 같았던 '노동의 종말' 또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시대로의 전환은 TV 방송의 몰락을 가져오고 있고, 숏비디오의 등장은 시장경제의 광고, 마케팅 방향뿐 아니라 인류의 소통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 거대기관, 거대매체, 거대담론들이 더는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를 대체하는 다양한 매체와 미디어, 가치관들이 빠른 속도로 생성 및 분화되어가면서 점점 더 세상은 예측불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역설적이게도 이는 오히려 단 하나의 사실만은 더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미래는 하나의 정답을 찾는 기존의 중앙집중화, 획일화의 방향이 아니라 수많은 정답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다양성, 다원주의, 자치와 분권의 시대로 나아가게 될 것이란 점입니다. 지역문화예술, 그리고 지역의 청년들이 잠재력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지금,  
행복하십니까?”

: 대답으로서의  
문화예술

오랫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욕구는 ‘생존’이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제성장을 거듭해야 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이기고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 바로 ‘경쟁주의’ 이데올로기가 지금까지 사회를 지배해 왔습니다. 단언컨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그 시스템은 더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새로운 세대에게 있어서 만큼은요.

지금의 청년 세대는 생존경쟁의 끝에는 경쟁 그 자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몸으로 경험한 세대입니다. 경제성장의 환상은 끝을 향하고 있고, 연금제의 부담, 노동의 불확실성, 극심해진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등 자신들의 지속가능한 삶 자체를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에 계속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성 세대가 만들어 놓은 성찰없는 시스템이 ‘더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관념으로가 아니라 생활과 삶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그들과 함께, 또한 그들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랫동안 방기해 왔던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러한 삶과 세상이 우리가 추구하고 도달하려 했던 결과가 맞는지, 그래서 과연 우리는 ‘지금, 행복한지’를 말합니다. 많은 이에게 대답은 ‘아니오’일 것이며,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세상은 기존의 생각과 언어,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해하고 정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흔한 말이지만 그 바탕은 ‘행복추구를 추구할 권리’를 찾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재력, 학력, 권력을 위해 오늘의 삶을 저당잡히는 삶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삶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며, 진정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탐험해 나가는 것이 제가 믿는 새로운 삶, ‘행복’의 패러다임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행복’이 가장 중요한 명제가 되어 갈수록, 예술은 더 크게 세상에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술이아말로 인간이 원하고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궁리 끝에 탄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술을 어떠한 것이라 정의내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예술하는 시의 등장은 그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더이상 아닐지 몰라도 여전히 인간만이 즐길 수 있는 것,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표현 혹은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예술이라고 믿습니다.

## # 다원주의적 세상에서의 '지역'의 가치

사회의 변화와 분화는 그 예술의 행태, 저의 언어로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과 형태 또한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스미디어가 주도하는 대중문화예술의 힘은 강력하지만 이제는 거대미디어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소비자와 향유자가 스스로 문화예술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팬들이 주도하는 BTS의 팬덤 또한 대중문화 속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예가 될 것이며 서브컬처, 소수문화, 특히나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교류 형태가 그대로 반영된 '로컬문화'의 성장은 그러한 방향성, 즉 '고유의 것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더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기생충'이 글로벌시장에 통한 것은 그것이 그들에게 '소통가능한 로컬문화'였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소통이 가능하지 않으면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전달조차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유의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저 위대한 것을 따라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속에 소통하면서도 고유의 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 로컬, 소위 Glocal(Global+Local)한 것은 세상에서 점점 더 중요한 것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 # 미래세대로서의 '청년', 그들에게 '실험'을 허하라!

지역과 예술,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의 다원주의적 가치를 알고 실천해 낼 수 있는 동력은 아마도 기존의 세계관과 관습을 체화하고 있는 세대와 세력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더 키워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진 미래세대, 청년예술인들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태어난 청년들에게는 소위 '중양'에 대한 향수가 없습니다. '저당 잡힐 미래' 또한 이미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삶을 꾸리고 보람과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삶의 양식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이전의 세대들이 가졌던 수많은 시대적 경험들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해 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실험할 수 있는 권리를 그들에게 주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대라고 해서 반드시 새로운 답을 알고 있는 존재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의문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테지요. 다만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 기존의 문법들을 알고, 그것에 더이상 목매지 않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것들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어떤 관습에도 얽매이지 않고 새 해답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자유로운 실험이 허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것들로 새로운 것들을 가능하고 재단하고 가치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거대한 결과를 위해 수많은 '일시적 실패'까지 용인하는 것, 자유로운 토론과 교류, 실험 속에서 피어나오는 절대적 가치들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세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기성세대가 찾지 못한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기존의 잣대로 가능성을 재단하지 않고, 과정으로서의 실패를 용인해주며, 그들 고유의 방식으로 사유하고 교류하고 실천하고 실험하고 실패하며 그 속에서 대안을 찾아나갈 수 있는 그들만의 시공간이 필요합니다. 예술촌, 청년문화예술 플랫폼, 청년/예술인 커뮤니티, 미래예술인재단, 콘텐츠 제작소로서의 지역방송국 설립, 온라인지역문화예술사이트 제작 등 다양한 교류와 지원의 방법을 모색하고 그곳에 효과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고 배분할 수 있도록 미래세대의 목소리와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연우 음악인·공연연출감독

# 청년의 시선으로 바라본 지역의 청년 문화·예술 정책에서 필요한 것들

## 지역에서 청년 문화·예술이라는 화두가 떠오르는 이유

2010년대 후반 이후, 지역에서 청년 문화·예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중 총 21개 지자체에서 별도의 청년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광역 8개, 기초 13개) 그렇다면 지역에서 청년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방자치제라는 제도를 고려할 때 지역마다 다른 조례 제정의 이유를 특정한 하나의 이유로 일별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정책 경향의 관점으로 본다면 지역의 청년 문화·예술 조례들은 통상적으로 '지역 분권' 혹은 '지역 소멸'에 대한 고민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는 지자체 중 최초로 2013년에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sup>1</sup>

<sup>1</sup> 이 조례는 2017년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며 통합 폐지되었으나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된 2021년보다 8년이나 빠르게 제정되었다.



지역의 청년 문화·예술 정책을 지원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라운드테이블에서 당시 해당 조례의 입법을 담당했던 정책가는 이 조례를 제정한 배경으로 부산 청년들의 지역 이탈을 제1의 이유로 꼽았다. 한국의 제2의 도시라는 부산에서조차 서울로의 이탈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청년문화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이탈 현상을 막고자 했던 취지가 무엇보다도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sup>2</sup> 부산 외의 지역에서도

<sup>2</sup>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 TF 백서」 2022 중 III 미래예술을 위한 제언- 4. 라운드테이블 발제



청년들의 지역 이탈 문제는 지방소멸을 가속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청년 관련 실태조사에서 지역 내의 경제, 주거, 복지, 문화 등의 인프라 부족은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로 꼽힌다.

이러한 배경에서 예술과 문화시설을 비롯한 협의의 의미부터 삶의 양식과 질을 뜻하는 광의의 의미까지 '문화'의 지역 간 격차는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원인이 된다.

## '청년'에 투사되는 정책의 욕망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청년 문화·예술 관련 조례의 내용은 다를지라도 이를 근거로 만들어지는 사업들은 공통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각 사업에 서로 이질적인 이중적 시선이 투사되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사업에서 한편으로 청년은 자원, 능력을 가지지 못하며 불평등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로서 상정된다. 이 때문에 이들에게는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청년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세대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롭게 사회와 경제를 건인할 주자로 주목받는다. 청년 정책에는 이러한 이중적 시선이 투사된 경우가 많다. 문제는 서로 이질적인 속성(약자성, 주체성)이 개별 청년사업의 구체적인 목표나 방향 설정에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여기다 문화·예술 사업의 주된 유형인 '보조금 사업'이라는 성격과 기존 문화·예술 정책의 기준점인 '수월상'까지 더해지고 지역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까지 더해지면 더욱 많은 혼란이 생긴다. 위기의 청년 당사자에게 필요한 것은 직접적이고 세밀한 지원일 때가

하지만, 실제 정책과 사업에서는 적은 자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이 요구되어 청년 정책의 목적이 주객전도 되는 일이 벌어진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500만 원~1,000만 원의 보조금 사업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청년 활동 플랫폼도 만들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도 확산해 보고, 지역 소멸을 구원할 아이디어까지 바라는 식이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제대로 된 인건비도 책정하기 어려운 현재 형태의 문화예술 사업에서는 일자리는 생길 수 없고 자그마한 사업비로는 사라져 가는 지역을 구원할 만한 혁신적인 활동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청년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기반이고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임금이다.

2019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왔을 때, 기회를 쌓기 위해서 참 많은 지원서를 썼다. 일주일에 두 개꼴로 지원서를 냈지만 경험이 없는 내가 선정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고 그나마 선정된 사업들에서는 내 인건비를 책정할 수 없었다. 나는 그때 생존을 위해서 벽화나 디자인 등을 수주 받는 대로 진행했다. 이런 삶의 패턴 때문에 나중에는 번아웃이 왔지만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꼭꼭 참으며 지역사회에 예술로 기여하는 그 사업을 꼭 수행해야 했다. 그 해의 끝에서는 이런 삶이 지속 가능한 삶일까? 회의감이 들었다. 이러한 경험을 나 혼자만 겪지는 않았을 것이다.



### 당사자가 참여하는 지역의 청년 문화·예술 플랫폼 - 거버넌스의 필요성

이러한 경험 때문에 청년 문화·예술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타자와 정책의 욕망을 걷어내고 청년 당사자의 참여와 결정을 통해 청년 당사자가 생각하는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이런 활동이 가능하도록 참여에 기반한 제도와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청년은 각자가 원하는 것을 말할 능력이 있다. 필요를 구체적인 방향으로 제시하는 일, 즉, 정책을 설계하고 제안하는 일은 어느 정도 숙달이 필요한 일하기에 시작하는 시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숙달되어 갈 것이다. 2010년대 참여형 청년정책의 흐름이 형성되고 2020년대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며 전국에서는 청년참여 정책기구가 일반화된 이후로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토론하고 제안하는 일은 이미 익숙해진 흐름이 되었다. 그리고 각종 지역문화재단에 전문가로 컨설팅을 수행하는 세대들도 경험을 거쳐서 성장해오지 않았는가.

또 청년 참여에 기반을 둔 제도와 문화의 형성은 지역일수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는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연결된 네트워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생태계의 특성이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역에서는 중앙 정부에서 청년 예술인들의 일자리를 위해 만든 사업이 지역으로 내려올수록 금액은 줄어들고 교수, 선생님들에 의해 하나의 권력으로 활용된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자주 들려온다. 이러한 생태계에서 살아남는 청년들은 미래적 지향을 가지고 지역의 생태계를 견인할 주체적인 이들보다 타자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기존의 일들을 크게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답습해나갈 이들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 싶다. 지역이라는 현장에서 '관계성'은 지역문화·예술 생태계가 수월성에 기초한 엘리트 생태계와 구별되는 중요하고 고유한 가치이긴 하지만 부정적으로 발현될 경우 생태계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문제점이 된다. 이 때문에 청년 당사자의 관점으로 새롭게 정책과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sup>3</sup>에 기초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요식적 행위로 귀결되지 않도록 사업과 예산의 결정권을 구체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참여를 통해 지역의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며 지역의 전문가를 사회적인 경로를 통해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쉽게 말하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설계하는 일을 통해 개인은 성장하게 되며 사회적으로는 새로운 전문가의 탄생과 등장을 기대할 수 있다.

<sup>3</sup> 일방적인 정부주도적 정책수립을 벗어나 정부 외에도 기업, 비정부기구, 전문가, 당사자 등이 공동의 관심사에 기초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책을 수립해가는 행정운영방법론



### 도시현장형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성과 및 지역문화X청년예술 정책 방향

2019~2021  
도시현장형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연구보고서



### 지역의 청년 문화·예술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청년들이 지역에서 지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예술생태계 자원의 점유자이자 중요한 행위자 중 하나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역문화재단은 구체적으로 지역문화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지향하여야 한다. 협력적 거버넌스란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 운영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거버넌스와 달리 민주적인 과정과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말하자면, 신공공관리론에 기초한 문화재단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문을 받는다. 구체적인 정책 결정 권한은 문화재단이 행사하지만 협력적 거버넌스는 지역의 청년, 전문가, 시민 등을

행위자로 초청하여 정책을 함께 수립하고 결정하며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문화재단은 과거와 달리 문화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집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문화민주주의에 기초하여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가능하며 행위자와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협력적 거버넌스 원리에 기초하여 지역의 문화재단이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고민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해보면 다음과 같다.

▲ 무엇보다도 정책설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경제적 보장이다. 청년은 단일한 대상이 아니며 소득, 성별, 지역 등의 다양한 개인의 격차를 가지고 있다. 청년 개인이 가진 고유한 역량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경제적인 것들에 좌우되어 좌절되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밥을 굶으면서 예술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를 놓치면서 청년 문화·예술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빠트리는 일이다.

▲ 지역에 청년 예술인을 어떻게 유입시킬 것이며 어떻게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초예술의 경우 장르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교육과정에서 지역을 하나의 '씬'으로 경험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심지어는 고정관념에 의해 부정적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청년들이 지역이 하나의 예술 활동을 위한 씬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경험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예술대학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 '지역성'을 중심으로 '수월성'의 예술계와는 다른 다변화된 예술현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국내 문화예술계는 주로 수월성에 기초하여 형성되어 왔다. 수월성 중심의 예술계를 중심으로 사유할 경우 수도권 중심의 사유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수월성에 기초한 예술계와 달리 지역의 문화현장이 줄 수 있는 고유의 매력과 의미는 무엇일지를 고민하며

중앙정부의 정책들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일상의 삶 경험에서 창작을 찾는 과정형 창작 사업은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 지역문화 정책은 '관계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통상적인 문화·예술 정책은 예술 경영의 이론에 따라 창작과 향유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지역문화 정책은 중앙이나 광역의 정책처럼 창작과 향유로 이분되어 구성되기 어렵다. 이는 생활예술을 둘러싼 갈등처럼 일종의 혼란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지역에서 사람과 부대끼는 경험, 상호가 영향을 주며 발생하는 영감들, 친밀한 관계들은 지역의 문화·예술 현장이 줄 수 있는 고유한 매력이 되어줄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청년예술인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주체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창작 지원 외에도 지역 문화·예술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 각각의 요소가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한다는 '생태계'적 관점을 바탕으로 타 지역정책, 청년정책과 문화·예술 정책의 상호연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중앙에서 광역·기초 단위로 내려올수록 이름만 다른 비슷한 유형의 많은 사업이 존재한다. 거의 동일한 사업을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에서 또 기초자치단체의 관청, 문화재단에서 그리고 청년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수행한다. 하지만 수행하는 기관에 따라 어떤 사업은 문화·예술로 기록되고 어떤 것들은 기록되지 않는다. 지역문화 생태계 활성화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재단은 넓은 관점을 가지고 흠뻑려져 있는 활동들을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로 엮어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타 기관에서 운용되는 사업과 자원을 활용하여 영리하게 생태계로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전국마다 고유한 매력이 있는 활동과 씬이 더 등장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것이 서울 중심의 생태계에 대한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필자도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서울 출신의 사람은 아니며 서울살이가 버거워질 때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해보고 한다. 내가 자란 남도의 바다의 풍광은 언제나 그리운니까. 청년에게 기회와 권한이 주어지고 이들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씬을 재창조해낼 때 언젠가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2020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최종공유회 11.06, 금 18:00 대구청소년문화의집 7층 대강당

## 그래도 해냈다 NEVERTHELESS, WE MADE IT!

- 청년자율예산 기금 □ 청년 대중교통 정기권
- 굿프 모니터링 기능 □ 일자리 정책 캘린더
- 청년예술인 굿스타트 □ 청년 1인가구 온라인 플랫폼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금융교육 종합패키지
- 청년 거버넌스 독립 □ 한국수화언어 조레 발의
- 청년들의 환경 변화 □ 청년 멘토링 사업
- 청년응원기업 상생사업 □ 청년을 바꾸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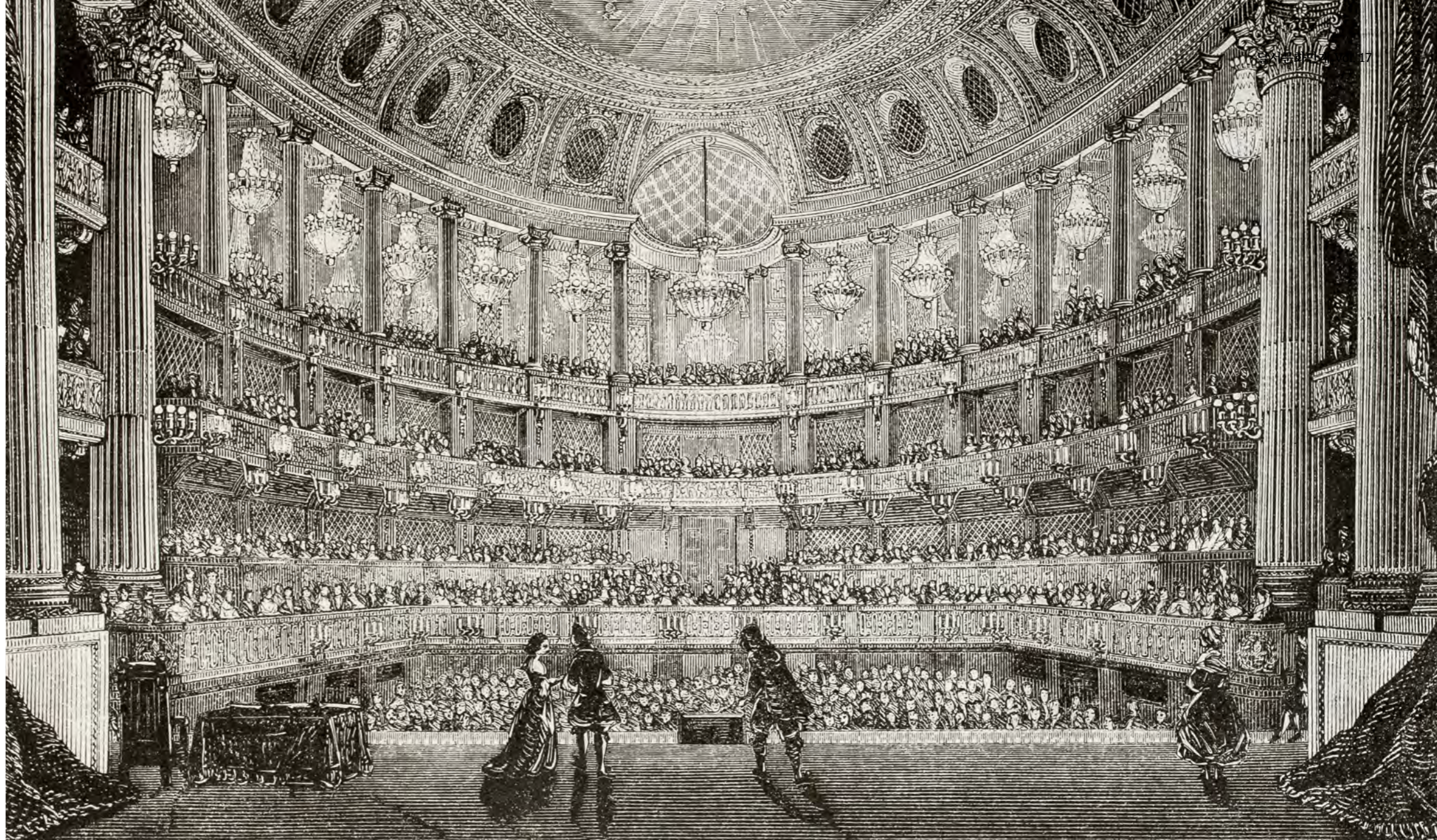
일정(청년인턴선정)만 대구 청년 세그먼트

후대(청년)문화의집 대구광역시청 대구문화재단



신민준 문화현대 집행위원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TF 공동팀장

문화가 권력이고,  
취향이 위계였던 시절에 대한  
소고(小考)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하는 것이 특권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소수의 전문인이 생산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다수인 소비자가 소비를 했으니 자연스럽게 권력을 가진(그것이 힘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사회 구조에서든) 이가 더 많은 문화를 누릴 수밖에 없었을 시대였다. 계급이 우선되던 사회에서 문화예술은 계급의 최상위권에서 향유하는 상징과도 같았고 먹고사는 일이 급한 평민 또는 빈곤 계층에겐 문화는 갈망의 대상조차 아니었을 것이다.

산업화 이후 '대중'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대중문화'는 특정 계급만이 향유하던 문화의 경계를 허물었다. 하지만 대중문화는 여전히 '다수의 대중이 향유하는 질 낮은 문화'로 무시의 대상이 되었는데 문화 취향의 위계가 여전히 신분의 위계와 연결되어 있었던 까닭이다.

‘Y시의 중산층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내게 내 취향, 재즈 아니면 클래식, 타티 아니면 르네 클레르를 물었을 때 그것만으로도 내가 다른 세계로 건너왔음을 깨닫게 됐다.’

아니 에르노 Annie Ernaux <남자의 자리 La Place> 1984BOOKS. P59

2022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1940년생 아니 에르노(Annie Ernaux)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한순간을 이렇게 서술했다. 프랑스의 빈민층이었던 그녀가 마주한 중산층과의 벽이 바로 ‘취향’이었다. 또 다른 작품 <단순한 열정(Passion Simple, 1991)>에서 그녀는 중산층 남편을 만나 중산층으로 살게 되면서 클래식을 듣게 되었다고 표현했다. 1970년대까지도 프랑스에서는 중산층과 빈민층을 구분하는 경계가 클래식과 대중가요에 대한 취향의 차이였다는 말이다.

취향의 사전적 의미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이다. 17~18세기의 유럽에서 취향은 대상의 미묘한 미적 품질을 받아들이는 특별한 능력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칸트(Immanuel Kant)는 <판단력 비판(Kritik der Urteilskraft, 1790)>에서 ‘취향이란 미(美)를 판정하는 능력’이며 ‘미적 판단은 취향 판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취향 판단’ 내지 ‘취미 판단(Geschmacksurteil)’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그의 책 <구별짓기(La Distinction, 1979)>에서 “우리가 취향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회적으로 자신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징이다. 출신 배경이나 학벌이라는 요인이 사회적 가치는 물론이고 예술에 대한 취향마저도 결정한다”라며, “한 개인이 어떤 문화를 선호하는가의 여부는 그의 계급, 직업, 학벌, 혈통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취향은 그런 점에서 개인이 살아온 사회적 조건에 의해 구성되는 미적인 성향 체계라는 의미다.

부르디외는 1967년~1968년 사이 프랑스 3개 도시에서 다양한 사회적 대표성(성별, 소득, 환경 등)을 가진 1,2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화 선호도에 대해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그는 개인의 취향이 개인에게 머물지 않고 하나의 계층을 형성하는 것을 발견했고, 계급별 사회적 취향이 개인의 취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찾아냈다.

조사에서 보면, 자본의 대부분을 문화자본의 형태로 취득하는 중간계급은 취득하는 문화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자본이 빈약한 편이다. 그들은 체스를 하고, 오페라를 관람하며, 미술관을 방문했고 <르 몽드>를 읽었다. 앤디워홀, 반 고흐를 좋아하고 스트라빈스키를 들었다. 반면 자본가와 경영자들로 이루어진 상류계급은 자본의 대부분을 경제 자본으로



소유하고 있어 고가의 미술품 수집, 골프, 요트를 즐겼다. 이들은 경매로 골동품과 미술품을 구입했고 호텔에서 휴가를 즐겼다. 민중 계급인 농민이나 노동자는 승마가 아닌 경마를 즐기고 클래식보다는 민중가요를 선호했다. 미술관은 그들에게 흥미롭지 않지만, 유명 화가의 그림이 프린트된 머그컵은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문화자본이든 경제 자본이든 그러한 자본의 총합이 빈곤했고, 한쪽의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한쪽의 자본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본 자체가 부족해 어느 한쪽의 자본을 늘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피에르 부르디외는 중간계급 이상부터는 예술에 대한 해석 능력이 발현되어 미술관, 박물관에 취미를 갖는 편인 반면 중하위 계급으로 내려갈수록 노동의 고단함을 잊을 수 있는 가벼운 문화를 선호한다고 했다. 그는 또 민중문화는 즐기는 데 필요한 노력이 덜한 대중문화, 매스미디어, 도박, 중독성 있는 게임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위계와 같은 취향의 의미는 대중매체의 등장과 확대로 조금씩 얼어졌다. 대중매체가 문화 소비자나 문화 생산자 사이를 중개하는 문화 분배와 소통의 체제로 자리하면서 누구나 문화를 쉽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취향은 더 이상 위계를 대표하지 않는다. 문화예술의 대량생산 체제는 한때 순수 예술이 그들의 영역을 더욱 고수하게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대중이 예술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부추겼다. 덕분에 문화예술 장르의 경계가 사라지고 다양한 시도들이 등장하면서 대중은 더욱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문화예술의 취향은 ‘누가’가 아닌 ‘어떻게’로 구분되며, ‘우열’이 아닌 ‘다름’의 표현이다. 그리고 우리는 취향을 선택하는 시대에 산다.**

참고문헌  
피에르 부르디외, 구별짓기(상)(하), 새물결

# 오늘날의 문화예술 : 예술, 일상이 되다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작품을 제작하는 모든 인간 활동과 그 산물

예술(藝術, Art)의 정의는 사전 속에서도 ‘아름다움’, ‘표현’, ‘창조’, ‘목적’, ‘모든’ 등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말들로 채워져 있다. 그만큼 예술이란 말이 시대와 공간, 개인이나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그 기준과 평가가 달라지는 모호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예술을 정의함에 있어 거대한 흐름이란 것은 존재해왔고, 그 속에서 과거와 오늘날의 예술을 가르는 커다란 터닝포인트는 있었다. 바로 ‘대중’이다.



### 누구나 만들고 누구든 소비할 수 있는 예술

바야흐로 밈의 시대다. 본래 밈(meme)이란 문화 요소들이 가지는 복제적 특징을 유전자(gene)에 빗댄 표현이었지만 오늘날 흔히 말하는 밈은

인터넷에 떠도는 재미있는 이미지나 영상 등 일반 대중들에게 두루 향유되는 모방 문화를 의미한다. 유아 캐릭터 루피의 다양한 세대 초월 변주, 가수 비의 '강' 패러디물, SNS의 각종 챌린지 등이 대표적인 밈에 해당한다. 누구나 예술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밈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이자 대중 예술 행위로 작동한다.

예술을 소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밈 뿐만 아니라 온라인의 다양한 문화예술 플랫폼은 누구에게나 로그인을 허락한다. 음악을 원하면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을, 전시 예술을 원하면 전시 플랫폼을, 영화나 드라마를 원하면 OTT 플랫폼을 이용하면 된다. 그리고 세상 모든 예술적 장르와 취향이 한데 모여 있는 비디오 플랫폼, 유튜브도 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나 가닿을 수 있는 오늘의 문화예술은 과거의 높은 진입 장벽을 허물고 어느덧 우리의 삶 가까이 다가와 일상이 되었다.



### 경계 없이 소통하는 다채로운 예술의 장

문화예술을 일상으로 키운 건 8할이 인터넷이다. 포노 사피엔스\*들에게 온라인은 또 다른 삶의 장이다.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 창구에서 밈으로 놓고, 문화예술 콘텐츠를 향유한다. 좋아요, 구독, 댓글, 팔로우 등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개인들은 연결되고, 이 콘텐츠의 생산자가 저 콘텐츠에선 소비자가 되며 호혜적 교류를 형성한다. '알고리즘'이라는 기록 기반의 거대 콘텐츠 공급책과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소통의 확장을 강요받기도 한다. 그야말로 물리적 공간을 초월한 소통의 장이자 도구로서 문화예술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매너(행동양식)는 사람을 만들고, 공간은 매너를 만든다. 특정 공간에서 특정한 격식을 갖추어야만 문화예술을 접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문화예술은 다양한 공간과 형식 속에서 자유롭게 펼쳐진다. 가상의 온라인은 물론이거니와 현실의 길거리, 공원, 지하철역, 시장, 산, 들, 바다, 하늘 등 장소 불문 예술을 선보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전시장이 되고 공연장이 된다. 예술이 삶에 가까워지자 이를 만나는 공간 또한 일상 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포노 사피엔스 :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사고하는 현대인을 가리키는 말



###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예술

AI(인공지능)라는 괴물이 나타났다. 인간의 바둑을 대체한 AI 알파고가 세상을

놀라게 하더니, 이젠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이란 것이 나타나 인간을 대신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이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만들어낸 것이다. 높은 디테일과 기술력에 대한 감탄에 앞서 인간 고유의 영역인 '창작', 즉 문화예술 분야까지 기계가 잠식하는 것은 아닌지 탄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렇다 정말 인간들의 예술은 사라지게 되는 걸까? 특권이란 장벽을 깨고 모두의 일상이 된 지금의 예술이 앞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

'신(新) 르네상스'라는 말이 있다. 14~16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인간성 해방을 위한 문화 혁신 운동

'르네상스'가 중세의 기독교 중심의 세계관을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꾸어 냈듯, 오늘날 초고도 정보통신기술과 자본주의 중심 사회에서 결국 문화예술은 인간 중심으로 재현될 것임을 전망하며 등장한 표현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예술은 자유를 지향하고 억압에 저항해왔다. 이것이 인간이 창조하는 문화예술의 본질이다. 인간을 넘어서기 위한 예술이 나타나면 인간은 그것을 넘어서는 예술을 하고 말 것이다. 기술을 창조한 것도, 그를 통한 새로운 예술을 창조한 것도, 그로부터 탈피한 예술을 창조하려는 것도 모두 사람의 손에서 비롯된다. 사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다.



지역 대학 청년들이 세운  
무용협동조합 — 춤날



무용협동조합 춤날(이하 춤날)은 수십 년 간 무용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대를 주축으로 문진학, 김동윤, 김연주, 최선영, 박지윤이 만든 협동조합이다.

무용협동조합 '춤날'을 소개해주세요.

'춤으로 나를 세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비전공자들에게 현대무용을 교육하고, 무대 위 공연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예요. 현대무용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대중화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죠.

무용협동조합이 생소한 단어인데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현대무용'하면 생소하죠. 그게 과연 뭘까? 발레와는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대중들에게 아직까지 무용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게 현실이죠. 현대무용을 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라든지...

저희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돈을 안 벌고 무용을 하기엔 너무 이상적인 것 같고, 돈을 벌자니 현실적으로 체감이 되니 춤이 안되더라고요. 이렇게 겪어오면서 무용하는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큰 문제없이 무용을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생각을 거치면서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공연과 교육을 떠올리면서 협동조합을 만들자! 결심하게 된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있다.  
언어로 미처 표현하지 못한 부분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춤이다.  
단순히 표현되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감정과 느낌을 몸의 언어로 발현해낸다.  
춤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자유롭게 표현하며,  
나를 완성해나가는 춤날의 몸짓이 시작된다.



어떤 활동을 해오셨나요.

2022년 9월 대구 지역에서 처음으로 무용협동조합 ‘춤날’을 설립했어요. 설립 전 5월부터 협동조합 관련 기본 교육을 받으면서 차근차근 준비했죠. 동시에 소셜 인큐베이팅 사업비를 받아서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인 퍼블릭댄스(Public Dance)를 제작했어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무용교육도 진행했어요. 현대무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트레칭으로 몸의 불필요한 긴장을 완화시키고, 자신의 몸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요.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현대무용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하는 거죠. 지난 5월에는 춤날의 창단 공연 Overture을 무대에 올렸어요.

무용협동조합 ‘춤날’ 안에서 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멤버들마다 맡은 분야가 있어요. 이사장님은 연출과 안무, 총괄 지도 등을 맡고 있고, 연주 이사는 기획과 각종 공연 진행, 제작 등을 총괄하고 있어요. 진학 이사는 영상 촬영과 제작을 담당하고 있어요. 다른 멤버들은 SNS 홍보 마케팅 부분을 도와주고 있어요. 멤버 전부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작품 안무를 제작해서 공연에 올리는 일도 함께 하고 있어요. 아직 직장처럼 9 to 6 개념은 아니어서 각자의 일을 하다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있으면 다 같이 모여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협업하고 있어요.

‘춤날’이 추구하는 목적을 말씀해주세요.

예술하는 사람들은 수명이 짧아요. 취업하기도 힘들죠. 수익을 창출하면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죠. 춤날이 가지고 있는 무용적인 역량을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죠. 정리하자면 무용가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된 공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욕심은 춤날이 계속 발전해나가면서 나중에는 저희가 없어도 후배들이 설 자리가 있었으면 해요. 대중성을 가지고 가면서요.

그렇다면 예술성과 대중성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술성과 대중성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공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선은 대중성과 예술성 두 개로 분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예술 작품은 소비가 되어 되잖아요? 당연히 대중의 소비가 있어야지 작품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춤날’의 포부와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 종류의 공연을 제작해서 페스티벌을 진행하려고 해요. 교육 사업에도 크게 비중을 두고 있어요. 앞에서 말한 퍼블릭댄스(Public Dance)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와 연계, 확대할 예정이에요. 더불어 어린이, 중장년층들에게 활력이 될 수 있는, 즐거움을 가져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에요. 자체적으로 공연 제작을 하기 위한 가장 큰 수단이 되는 소극장 설립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10년 후의 춤날은 어떤 모습일까요.

10년 후에 전 퇴임을 앞두고 있거나 독재자로 장기 집권을 하고 있겠죠? 하하 춤날만의 공연을 통해 ‘춤날’이 하나의 공연 문화로 자리잡고, 예술가들이 기반을 잡을 기회가 마련되어 있었으면 해요.



#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달서구 청년센터



청년들은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다.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센터와 같은 공간은  
많은 사람이 진로와 자기 계발을 위해 이용하는 장소다.  
소통하면서 스스로를 계발할 수 있는  
그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 • 든든한 청년센터 •

2022년 8월 개소한 달서구 청년센터는 청년들의 필요에  
맞춘 프로그램과 시설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그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진로 선택, 취업 준비, 교육, 창업 등에 관련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고, 청년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나 해내기  
지원사업 등도 지원하고 있다. 개소한 지 1년 남짓한 짧은  
시간이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달서구의  
청년들이 이 공간을 방문하고 있다. 더 많은 이용을 위해  
2023년부터는 상담과 멘토링 사업을 병행하며 청년들의  
내면에도 귀 기울이고자 한다.



### INFO

달서구 청년센터  
📍 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흥로3  
(송현동 195-5)  
☎ 문의 053-628-1008





1층 레이저 각인기



1층 3D 프린팅기



1층 편의시설 커피머신



2층 교육장

• **알아두면 쓸모 있는 프로그램** •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달서구 청년센터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두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실현 가능하도록 하는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청년들은 예술, 스포츠, 봉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중에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동료들과 함께 활동하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류나 네트워킹 등 이벤트를 개최해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동시에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둘째로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자기 계발 및 문화 활동을 위한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다. 아카데미는 청년들의 니즈에 맞게 다양한 분야와 교육 기간으로 구성하였다. 최근에는 청년들의 니즈에 맞는 인기 있는 공방과 강사 초빙에 심혈을 기울여서 강의를 개설하고 있다. 청년들의 관심과 문의가 많아지고, 참가 모집이 빠르게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올해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달서구 게임 고수를 찾는 ‘e-스포츠 대회’를 준비했다. 이 대회는 달서 청년주간\*을 맞아 개최되며, 건강한 e-스포츠 문화의 확산과 청년들 간 네트워킹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달서 청년주간이란?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달서구 청년센터 개최되는 행사

• **우리가 바라는, 원하는 공간** •

달서구 청년센터는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 1층에는 청년들이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청년창업공간, 유튜브 및 영상 촬영을 위한 장비가 갖춰진 크리에이터 부스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개인적이고 편안한 상담을 위한 상담실은 물론 다양한 회의와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장도 있다. 2~3층은 입주기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무실, 탕비실 등 창업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다. 입주기업은 청년들의 창업과 진로를 지원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초록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옥상 정원도 자리하고 있다.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쉴 수 있는 쉼터가 되기도 하고,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식물과 꽃을 보며 여유를 만끽하기에 충분하다.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러분의 잠재력을 깨우고,  
성취해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달서구 청년기획단이란?** •

대구시 달서구 청년 기본조례에 의거해 만들어진 달서구 청년 기구인 청년기획단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총 5개의 전략(사회참여, 일자리, 청년자립, 청년문화, 결혼친화) 안에서 달서구 지역 청년들의 ‘허브’ 역할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게  
또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달서구 청년기획단 단장 허용범

청년기획단은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시정이나 구정에 전달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문제를 안고 가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는 청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청년들을 위해 청년기획단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별은 그 존재만으로  
밤의 이정표가 된다.



작가가 정성껏 빛은  
그의 공간이 \_\_\_\_\_  
달서의 문화를 한껏 밝히고 있었다.

# 빛을 담은 작가, 박한나

빛으로 인해 생긴 그림자는  
일상에서 그 존재를 자주 잊어버린다.  
분주한 일상은 우리를 조금하게 만듦으로.  
작가는 일상적 소재를 끌어와 빛이 주는 따뜻함,  
즉 평화의 순간을 담아낸다.  
자연으로부터 비롯된 빛의 그림자는  
우리를 평화로운 공간으로 인도한다.  
우리는 박한나 작가의 그림을 통해  
잠시나마 현대사회의 분주함을 잊고  
작가가 말하는 치유의 경험을 통과한다.

###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빛을 담은 작가 박한나입니다. 대구에서 그림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카페 겸 작업실 용도로 '작은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빛을 담으신다고요.

빛은 저에게 있어 언제나 따뜻함을 주는 소재예요.  
살아가다 보면 삶이 척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작업을 하면 마음을 가다듬게 되고, 조용해지게  
되더라고요. 제 작품이 사람들의 마음에 창문이 되어  
삶에서 여유와 힘을 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해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평안을 주도록. 그런 순간들을 그림에  
담고자 합니다.

### 빛을 가지고 어떤 작품들을 작업하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그릇을 대상으로 많이 그렸어요. 그릇을 쌓아  
올려 사람을 여러 형태로 배치하는 형식인데요. 최근에는  
빛을 이용한 그림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림자라고 하면  
흔히 어둡거나 잿빛을 연상하실 텐데요. 최근에 색채에  
관심을 가지면서 파란색, 갈색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색의  
그림자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색에 대한 통념을 깨트리는  
동시에 시리즈처럼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인터뷰 영상보기



**작업 과정이나 작품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작품을 의무적으로 그리는 편은 아니에요. 평소에 다이어리를 들고 다니는데요. 일상에서 인상적인 일을 기록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리해요. 그리고 일상에서 포착한 것들을 조합해서 원하는 스토리로 담아내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릴 때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작업을 '어떻게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얽매어 진행했을 경우, 끝까지 완성하더라도 제가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진심을 담은 그림들이 저한테 더 와닿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변의 이야기들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순간만큼은 삶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료요.



**예술가로서 달서구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신진 예술인에 대한 혜택이 잘 이루어집니다. 제가 대구 내에서 전시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서울, 부산 지역 위주로만 전시를 하다가 작년부터 렌탈 사업과 같은 신진 작가 후원을 통해 전시, 홍보면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렌탈 사업의 경우 달서구 지역에 작업실을 두거나 거주하는 분들만 참여가 가능한 게 큰 메리트예요. 주변 작가들 중에서도 그림을 포기한 분들이 계신데, 만약 타지역이었다면 작가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요. 다만 달서구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가운데 전시나 작품 구매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술의 문턱을 낮춰줄 방안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아요. 대구 아트 페어도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 접근성이 떨어지고요. 최근에는 대부분의 전시가 카페 복합문화공간 같은 곳에서 열리는 추세다 보니, 신진 예술인들을 위한 전시 공간이 좀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상에서 인상적이었거나 모티브가 된 것이  
있는지.**

과거로 넘어가는데요. 2016년도 작업 중에 '눈 내리는 날 우리에게 온 선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제가 주변 돌보는 일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아서 크리스마스 날 놀지만 말고 주변을 좀 살펴보자라는 생각에서 시작했어요. 저희가 산타가 되어서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봉사했던 경험을 작품에 담았던 적이 있는데, 저에게 첫 시도이기도 해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요.

**작업실에서 클래스도 진행하신다 들었습니다.**

대부분 취미생들이 오세요. 그중에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그림을 포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싶었던 그림에 맞춰 진행하다 보니 개개인별로 수업이 조금씩 다르게 진행돼요. 어린이 수강생들에게는 입시 미술 형식보다는 주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도록 지도합니다. 대상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도출하기도 하고 추상적인 그림을 그려낼 때도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다 보면 1년 전에 했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확연히 달라진 게 보여 수강생들도 만족도가 높은 과정입니다. 알고 보니 제가 그림을 가르치는 일에도 흥미를 느끼더라고요.

**달서구에서 계속 활동하셨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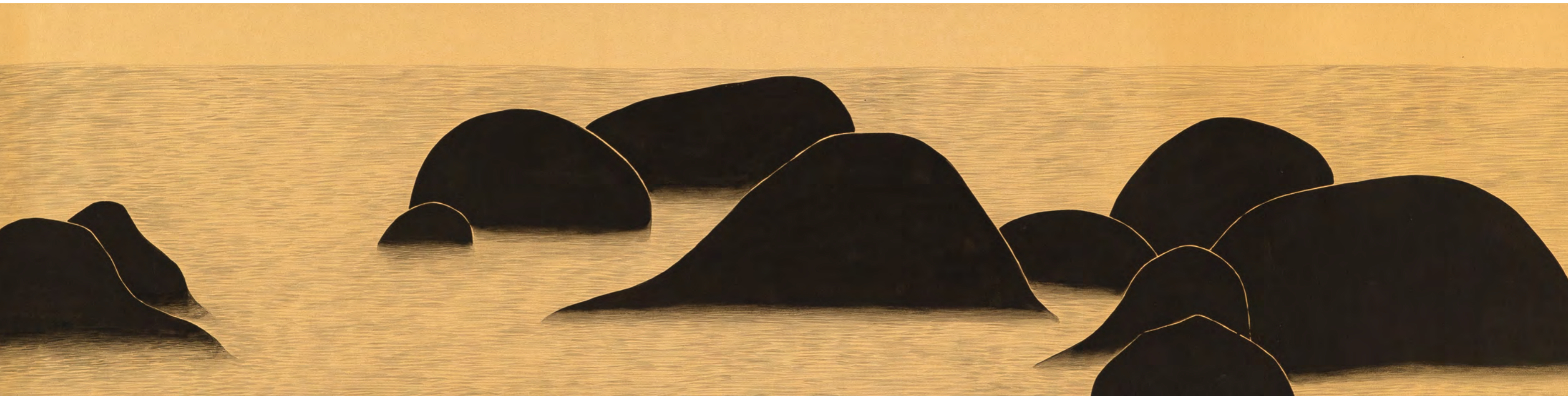
대학을 대전에서 나왔어요. 졸업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보가 부족해 고향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작업 활동을 지속할 방안을 모색하다가 카페를 같이 열었구요. 오전에는 출강을 갔다가 돌아와 그림 작업과 카페 일을 병행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7월에 울산에서 개인전이 열려요. 8월에는 서울에서 2인전도 열리고요. 그때까지 작품들을 건강하게 작업하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예요. 장기적으로는 걱정 없이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때까지 그림을 그리고 싶거든요. 다른 요인으로 그림을 중단하는 일 없이 무탈하게 그림을 오래 그리고자 합니다.



김조은, silent flow, 100\_50cm, 금지에 먹, 2022



# 아름다움의 총만, 명장면 명대사가 주는 힘

영화 속 명대사는 늘 시대를 넘어 우리의 가슴을 울린다.  
그 속에는 지극한 사랑이 있고, 삶의 위로가 되는 뜻이 있으며 또 용기를 주기도 한다.



“사랑은 절대 미안하단 말을 하지 않는 거야”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re sorry**  
러브 스토리(1970)

사랑이란 참으로 미묘하면서도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 또 고백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느껴지는 둘 사이의 감응이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라도 타인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러브 스토리’에서 제니의 말은 무슨 뜻일까. “앞으로 미안한 짓 하지 말라.”는 뜻일까. 물론 표면적인 뜻일 수 있다. “미안해!”라는 감정은 다분히 세상의 이치에 따른 것이다. 사랑은 그 너머에 있다. 둘만의 특별한 공간, 둘만의 시간에서 감응하는 것이다. ‘사랑’과 ‘미안’은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는 감정이다. 그래서 제니의 말은 둘만의 세계, 사랑의 정수(精髓)를 붙잡으려는 마음이 아닐까. 이처럼 추억의 명화에 켜켜이 쌓인 관객의 세월 또한 더하니 더욱 가슴에 와닿는다.

달서아트센터에서 ‘영화 속 명장면 명대사를 찾아서’ 강좌를 2년째 열고 있다.  
다시 보고픈 영화의 명장면과 함께 그 명대사의 의미를 다시 읽어내는 시간이다.  
올해부터는 고전뿐 아니라 신작 영화도 추가했다.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2021)이나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드라이브 마이 카’(2021)처럼 단순히 보는 수준을 넘어 영화들의 장면과 대사를 통해 영화의 속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헤어질 결심’에서 서래(탕 웨이)는 “나는 당신의 미결사건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하고 바다 깊숙이 비밀을 묻기 위해 모래를 파헤친다. 그녀는 해준(박해일)에게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해준 또한 마찬가지다. 그래도 둘은 지극한 연모의 마음을 전한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미결’이 되고자 하는 필사적인 몸짓은 그 어떤 사랑도 도달하지 못하는 극지점을 선사한다.



많은 명장면 중에서 특히 필자를 매혹시킨 것이 ‘아메리칸 뷰티’(1999)의 비닐봉지 장면이다. ‘아메리칸 뷰티’는 미국 중산층의 몰락과 비애를 역설적인 아름다움으로 그려낸 걸작이다. 이성복 시인의 시 ‘그날’에는 이런 시구가 있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이 시구처럼 ‘아메리칸 뷰티’의 가족은 모두 병이 들었다. 40대 가장은 벼랑 끝에 내몰린다. 아내는 바람이 나고, 딸 제인은 “누가 아빠를 죽여줬으면 좋겠다”며 자신을 증오한다. 회사도 사악한 인간들이 득실댄다. 새파란 젊은 매니저가 호시탐탐 그를 해고하려고 한다.

**Today is the first day  
of the rest of your life**  
아메리칸 뷰티(2000)



옆에 살고 있는 예비역 대령의 집은 더욱 병적이다.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남편의 위세에 눌려 아들 릭키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고, 아내 또한 삶의 끈을 놓은 듯 망연자실해 있다. 릭키는 캠코더의 뷰파인더로 세상을 바라본다. 어느 날 제인을 초대해 자신이 찍은 영상을 보여준다.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비닐봉지다. 바짝 마른 낙엽 위를 무심하게 떠다닌다. 바닥에 앉으려다 다시 바람에 일어서고, 떠올랐다가 다시 가라앉는다.

“그날은 마치 첫눈이 내릴 듯했어. 공중엔 자력이 넘실댔고 춤추는 소리가 들렸어. 저 봉지는 나랑 춤을 추고 있었어. 같이 놀자 떼쓰는 아이처럼. 무려 15분이나 그랬어. 그날 난 느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과 신비롭도록 자비로운 힘을. 내게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걸 깨우쳐 줬지.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존재해. 이 세상에는 말이야. 그걸 느끼면 견디기 힘들어. 내 마음이 미어질 것 같거든.”

비닐봉지 비디오 영상은 ‘아메리칸 뷰티’가 진정으로 보여주고 하는 주제이며



명장면이다. 무심한 비닐봉지의 움직임에서 지구 위에 드리워진 위대한 자장(磁場)까지 느끼게 한다. 심미적 관점만이 아니다. 소소한 일상, 평범한 나의 하루를 담은 위대한 날들의 첫날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오늘은 당신의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

**Today is the first day of the rest of your life**

이라는 이 영화의 명대사와 잘 어우러지는 명장면이다.

명대사 중에는 ‘굿 윌 헌팅’(1997)의 “그건 네 잘못이 아냐(It’s not your fault)”가 특히 위로가 되는 대사다. 이 영화는 상처투성이의 한 청년이 자신을 이해해 주는 멘토를 만나 내면의 아픔을 치유하는 영화다.

월(맷 데이먼)은 폭력과 절도를 일삼지만 두뇌는 천재인 청년이다. 심리학 교수 손(로빈 윌리엄스)은 월이 어릴 적 큰 상처를 입었고, 이를 이겨내기 위해 현란한 지식을 뽐내는 것이라 간파한다. 그에게 월은 아직 어린아이다. 월의 지식은 모두 책에서 읽은 것이다. 경험이 없으니, 그 가치도 잘 모른다. 사랑을 받아 본 적도 없고, 사랑을 어떻게 하는 지도 모른다. 그래서 남이 먼저 떠날까 두려워 먼저 떠나가게 만든다. 처음으로 자신에게 다가온 스카일라(미니 드라이버)도 그렇게 떠나보낸다.

**It’s not your fault**

굿 윌 헌팅(1997)



손은 월에게 “너도 완벽하지 않고, 네가 만났던 여자에도 완벽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얼마나 완벽한가라는 거야.”라고 조언해 준다. 완벽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정도가 바로 사랑이다.

상담이 끝나갈 무렵 월은 마침내 어릴 적 학대받은 사실을 얘기한다. 손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이 “그건 네 잘못이 아냐”라고 말한다. 월은 심드렁하게 “알아요”라고 답한다. 손은 그에게 다가서며 다시 한번 더 “그건 네 잘못이 아냐”라고 한다.

손은 모두 10번에 걸쳐 네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다. 두세 번 거듭되자 월은 그제야 손의 마음을 알아듣는다. 그리고 분노한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세상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을 터뜨리며 손과 포옹한다. 네 잘못이 아니라는 말의 진정함을 이해하고 자신과 화해하는 순간이다. 영화는 월이 스카일라를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나는 것으로 끝난다. 웅크린 청년이 드디어 길을 나서게 된 것이다. “네 잘못이 아냐”라는 대사는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 다가서는 사랑의 언어다. 이번 6월에는 로버트 레드포드 감독의 ‘흐르는 강물처럼’(1992), 잭 니콜슨의 연기가 일품인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1997)의 명장면과 명대사도 살펴보았다.

‘흐르는 강물처럼’의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롯이 사랑할 수는 있다.” 나

**We can love completely, without complete understanding**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의 “당신은 내가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들어요.”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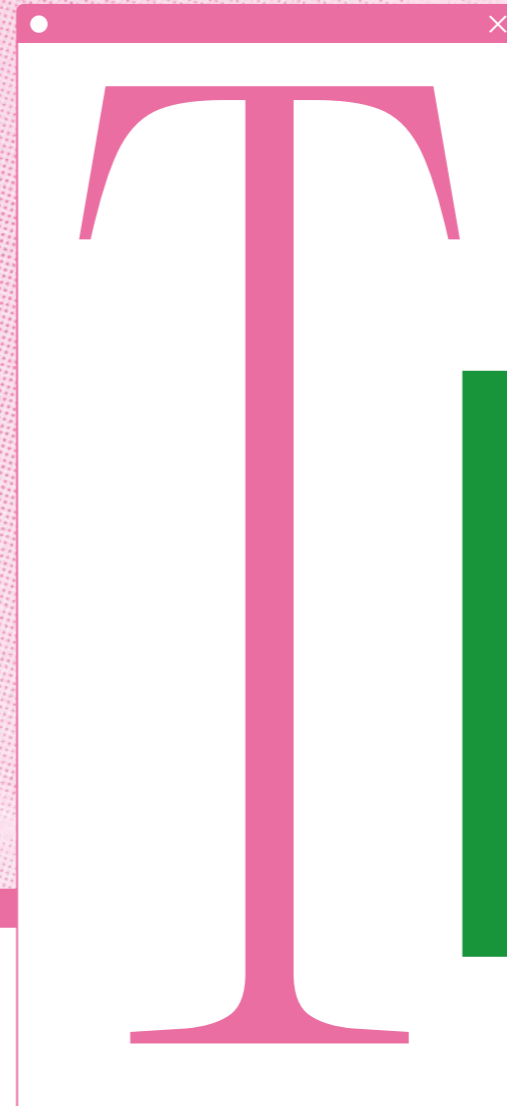
는 두고두고 회자되는 명대사이다.

이들 영화들을 보고 있으면 형용할 수 없는 충만감이 든다. 마치 ‘아메리칸 뷰티’에서 릭키가 느꼈던 미어질 것 같은 마음 말이다. 이 순간이 바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가 아닐까.

흐르는 강물처럼(1992)



김중기 영화평론가



챗GPT

우리는 이미 영화적 체험을 통해 먼 미래의 삶을 조금이나마 겪어보았다. 로봇에게 지배당하거나 로봇이 주인이 되는 세상. 대부분의 SF 소재의 텍스트는 이런 양상이다. 지금의 기술 발전 속도라면 머지 않은 이야기다. 우리는 이성과 반대되는 감성의 영역이 인간 고유의 것이라고 오래도록 단정 지어 왔다. 그런 생각이 무색하도록 로봇의 예술 활동에 대한 행보가 나날이 쏟아진다.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이도 있는가 하면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이들도 있다.

### 인공지능의 새로운 돌풍

예술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로봇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챗GPT가 세상에 공개됐다. 공개 두 달 만에 이용자 수가 무려 1억 명을 돌파했다. 인공지능의 눈부신 도약이었다. SF소설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는 인간과 인공지능을 구분하는 기준이 인간 고유의 감성에 있다고 보았다. 인간과 달리 인공지능은 감정이 결여된 존재이며, 감성이 요구되는 예술적 창조 활동은 불가능하리라 판단했다. 현존하는 SF 텍스트의 상당수가 이 지침을 따르고 있다. 인공지능은 이전 단계에서 이미 지각 능력, 학습 능력, 추론 능력을 갖춘 상태였다. 그러나 오픈AI에서 새로 공개한 언어모델 챗GPT<sup>1</sup>는 학습을 통한 딥러닝<sup>2</sup> 단계에 도달했다. 인간의 자연 언어<sup>3</sup>를 데이터베이스로 처리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문까지 가능해졌다.

챗GPT가 비평을 쓴 사례가 하나 있다. 한 이용자는 챗GPT에게 특정 영화의 비평을 지시했다. 첫 작업물은 내용적인 면에서 완성도가 떨어졌다. 대략적인 줄거리 요약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이용자는 다시 계급론적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지시했다. 그러자 계급 구조에서 드러나는 표현의 한계를 정확히 짚어냈다. 프롬프트가 명확해질수록 챗GPT의 답변 또한 정교해진다는 사실을 입증해낸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논문, 시나리오, 에세이 등 다방면으로 작문을 수행했다. 반복적인 문서 처리 작업을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지 기대하는 전망도 생겨났다.

기술 혁명이 가져온 발전은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지평을 열어주겠지만 이러한 현상에 피해를 본 이들도 있다.

#### ChatGPT 손쉬운 사용!

##### 올바른 프롬프트(지시문) 작성법

1. 문장은 간결하게.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문장을 구성한다.
2. 원하는 정보의 방향이나 조건을 제시한다.
3. 한 번에 답을 얻어내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질문을 만들어 간다.

1 인공지능의 한 갈래. 특정 단어를 주고 그다음에 출현할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를 예측하여 제시하는 모델  
 2 인간의 두뇌 작동 방식을 흉내 낸 것  
 3 인간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 길을 잃은 예술가

예술이 인간의 영역이라는 주장은 오랫동안 뿌리내려 온 통념이다. 그러나 챗GPT를 포함한 인공지능이 예술에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 최근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AI화가 등장 이후부터다. 일러스트레이터는 웹소설 표지 작업이나 삽화 외주를 통해 일거리를 얻는다.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 작업한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고작 10초 만에 그림을 생성했다. 인간의 작업 시간을 생각하면 획기적인 단축이다.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디테일이 빈약하고 상호 피드백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도 이런 불편함마저 감수할 만큼 낮은 금액은 소비자를 이끌었다. 개인의 역량이 시장성으로 연결되는 예술계에는 불안한 조짐으로 다가왔다.

챗GPT의 기술적인 성과는 뛰어나다.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으면서 인력 또한 줄일 수 있다. 질보다 양적인 가치로만 판단한다면 가장 성실한 일꾼이 될 터다. 그러나 발전

뒤에는 이면 역시 존재한다. 창작의 토대에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이 녹아든다. 사회에 직접 발을 담근 인간이 전승해 온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챗GPT의 학습 데이터에는 유해 정보에 대한 방지턱이 부족하다. 계급, 젠더, 소수자, 전쟁, 질병 등에 대한 맥락을 완벽하게 읽어내지 못한 역부족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와 상반되게도 챗GPT가 화제가 되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발 빠르게 GPT-3에 대한 라이선스를 사들였다. 다른 기업들도 앞다퉀 언어모델 연구와 개발에 뛰어들었다. 발전의 가속화는 예정된 수순이다. 그러나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규제와 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는 동떨어져 있다. 인공지능을 우리 삶에 들이는 일은 개인의 몫으로 남겨진다.

예술은 시대 흐름에 따라 꾸준히 변화해 왔으나 갑작스레 큰 폭으로 벌어지는 흐름은 준비되지 않은 인간을 두고 간다. 혼란한 틈을 타 새로운 전환이 찾아올지 인간 역사의 멈춤을 불러올지 예술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 Tip! 트렌드 용어

##### '인공지능 리터러시'

AI 시대의 구성원으로서 삶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소양으로 윤리적 태도를 가지고 AI 관련 기술과 데이터의 관리, 활용, 구성의 과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역량





#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 갤러리 위즈아츠

달서구는 대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갤러리가 많지 않다. 한명희 대표는 30년 넘게 살고 있는 이곳 달서구에도 갤러리가 활성화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줄곧 해왔다. 갤러리 위즈아츠는 그러한 소망을 안고 2019년, 달서구 상인동에 문을 열었다.

## 갤러리 너머로 영향력을 확대하다

위즈아츠의 공간은 달서구에 한정되지 않는다. 활발한 아트페어 참여로 작가들을 더 많은 관객과 조우시키고 있다. 그래서 위즈아츠의 작가들은 성장 속도가 빠르다. 무명 작가가 위즈아츠를 통해 인기 작가가 되는 일은 작가와 위즈아츠 관계자뿐만 아니라 관객도 공유하는 기쁨이다.

이곳에서는 대구도슨트협회가 주관하는 도슨트 양성 교육도

진행되고 있다. 2019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 벌써 5기 교육생을 모집·양성하게 된다. 이곳에서 배출된 도슨트들은 예술의 전당, 아양아트센터, 봉산문화회관 등 전국 각지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

각자의 세상에 매몰되어 대화가 단절되기 쉬운 요즘, 문화는 소통의 훌륭한 매개체다. 한명희 대표는 갤러리 위즈아츠가 그림

이야기뿐만 아니라 동네 이야기,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관객이 편히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두었다. 갤러리라는 장소의 문턱은 다른 문화공간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미술에 대한 작가들의 열정과 주민들의 꾸준한 관심, 그리고 작가와 주민들을 잇는 위즈아츠의 노력에 의해 이곳의 문턱은 조금씩 허물어져 가고 있다.

## 작가와 갤러리가 발맞춰 나아가는 공간

‘손재주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의 갤러리 위즈아츠는 남다른 열정을 가진 작가들의 그림만을 전시한다. 갤러리는 단순히 그림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작가와 갤러리의 동반성장이 실현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한명희 대표의 신념 때문이다. 미술에 대한 열정이 유독 돋보이는 작가들의 그림이기에 위즈아츠를 방문한 관객은 그림에 매료될 수밖에 없다.

위즈아츠와 한번 인연을 맺은 작가들은 이곳과 꾸준히 인연을 유지한다. 그래서 위즈아츠에는 지속성이 있다. 매번 다른 작가들의 그림이 걸리는 다른 갤러리와는 다르게 한 작가의 그림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 작가 한 명 한 명의 연속적인 스토리는 위즈아츠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재미다. 피상적인 관계와 빠른 변화가 일상이 되어버린 현대사회에서 위즈아츠의 작품들은 인연의 소중함과 지속의 가치를 일깨운다.



# 2023 DALSEO 달서아트페스티벌

PLACE 달서아트센터 일원

## ART FESTIVAL

### 2023. 7. 1. Sat. — 7. 9. Sun.

www.dsaf.or.kr

문의 053-584-8968

<b>RED ZONE</b>	백남준 외 특별기획전	달서 갤러리
<b>BLUE ZONE</b>	중년작가 기획전	아카데미 갤러리, 5-7 강의실
<b>LEMON ZONE</b>	청년작가 기획전	갤러리 라온, 청룡홀, 생활문화센터
<b>GREEN ZONE</b>	야외 조각전	야외광장
<b>LECTURE</b>	미치광이라 불린 예술가들 : 플릭서스 예술과 백남준 / 아트인문학 김태진	와룡홀

## DSAF 달서아트페스티벌을 준비하며

달서아트센터 문화기획팀

‘아트테크’ 등의 바람을 타고 미술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서울’이 흥행에 성공하며 한동안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지역에서는 미술품과 시민의 거리가 여전히 멀기만 하다. 아직은 먼 미술품과 시민 간 거리를 좁혀 예술 소비가 활성화 되는 ‘예술 선순환 도시 달서’를 만들고자 달서아트센터는 7월 1일부터 9일까지 <달서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해당 기간 동안 달서아트센터는 ‘소통과 융합, 그리고 확장’을 주제로 대구·경북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 70여 명의 작품을 한데 모은 대형 갤러리로 변모한다. 달서아트센터 전관은 레드 존(Red Zone), 블루 존(Blue Zone), 레몬 존(Lemon Zone), 그린 존(Green Zone) 등으로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각 콘셉트에 맞춘 작품들의 전시공간이 된다. 가장 먼저 달서 갤러리 및 별관 로비 공간으로 구성된 레드 존(Red Zone)에서는 백남준 특별전을 비롯하여 이명미, 박종규, 정은기 등 국내 유명 작가들이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별관 아카데미 공간을 활용한 블루 존(Blue Zone)에서는 지역 미술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진 원로·중견 작가들이 원숙한 작품성을 드러내고, 본관 1층 레몬 존(Lemon Zone)에서는 같은 시기 개최되는 제2회 레몬음악페스티벌 공연과 연계한 신선하고 톡톡 튀는 전시는 물론, 신진·청년 작가 20인의 미술체험 프로그램 ‘아트 스테이션 in 달서’도 진행된다. 잔디 광장 등 야외 공간을 활용한 그린 존(Green Zone)에서는 권기철, 김기주 등 8명의 작가가 다양각색의 조각 및 설치 작품을 선보이며 개막식 공연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3 DALSEO 달서아트페스티벌

PLACE 달서아트센터 일원

## ART FESTIVAL

### 2023. 7. 1. Sat. — 7. 9. Sun.

개막식 2023. 7. 1.(토) 16:00 장소 달서아트센터 달서 갤러리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달서아트페스티벌은 달서구 대표 미술 속제로 미디어 아트의 가장 백남준을 포함해 이명미, 박종규, 정은기 등 국내 유명 작가, 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년·청년·신진작가 68여 명의 작품을 달서아트센터에서 9일 동안 만나볼 수 있다.

전시 테마별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있는 이번 축제는 백남준 특별전을 비롯해 국내 유수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레드 존(Red Zone)’과 지역 미술계에서 입지를 다진 원로·중견 작가들의 원숙함이 스며 들어 있는 ‘블루 존(Blue Zone)’, 지역 대표 인디 음악 축제 ‘레몬 뮤직 페스티벌’과 연계해 리드미컬한 음악과 함께 신진작가의 작업을 생동감 있게 느껴볼 수 있는 ‘레몬 존(Lemon Zone)’, 그리고 야외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조각 및 설치 작품들로 구성된 ‘그린 존(Green Zone)’으로 지도를 보며 취향에 맞는 전사를 골라서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이 밖에도 베스트셀러 ‘아트인문학 여행’, 저자 김태진의 백남준 특별전 연계 강연과 미니 아트 페어, 10여 개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보다 더 다채로운 미술 속제로 2023년 여름을 풍물일 예정이다.

<b>RED ZONE</b>	백남준 외 특별기획전	달서 갤러리
<b>BLUE ZONE</b>	중년작가 기획전	아카데미 갤러리, 5-7 강의실
<b>LEMON ZONE</b>	청년작가 기획전, 미니 아트 페어, 체험 프로그램	갤러리 라온, 청룡홀, 생활문화센터
<b>GREEN ZONE</b>	야외조각전	야외광장
<b>LECTURE</b>	미치광이라 불린 예술가들 : 플릭서스 예술과 백남준 / 아트인문학 김태진	와룡홀 7. 1.(토) 14:00

주최 대구광역시 달서구 / 주관 달서아트센터, 대구미술협회  
문의 053-584-8968 www.dsaf.or.kr @dsaf2023\_official

이번 <달서아트페스티벌>은 상업성을 배제하고 예술가와 시민 사이의 벽, 예술인 간 세대와 장르의 벽을 허물고 21세기 미술이 성장해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탐색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는 지역 예술가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예술계와 함께 페스티벌을 만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의미를 가진 행사이다. 그렇지만 이 페스티벌이 시민에게는 일상 속에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지역 예술가에게는 새로운 활력과 창작의 열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더 나아가 <달서아트페스티벌>을 통해 준비한 이들의 마음과 고민이 확장되며 지역 예술계가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

## 주말엔 문화를 이어주는 생활문화센터로

달서생활문화센터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생활문화센터.

달서구는 이러한 생활문화센터를 2016년부터 달서아트센터 1층(달서생활문화센터 장기점)과 별빛캠핑장 내(달서생활문화센터 송현점)에서 운영하고 있다.

2개소 모두 자기주도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이들을 위해 동아리방을 무료로 대관해 주고, 생활문화·예술활동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들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Oneday Class)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생활문화·예술활동을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도시 달서구'를 위한 거점시설로 달서생활문화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아직은 생소한 공간으로 여겨지는 것 같다. 지역민들이 인지하고,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임을 알리기 위해 달서생활문화센터는 <주말엔 생활문화센터로(주최: 문화관광부, 주관: 지역문화진흥원) - 문화이음소>를 운영한다. 사업명 그대로 누구나 '주말엔 생활문화센터로'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달서생활문화센터를 개방하고 남녀노소 모두 체험을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취미로 교류하는 '취미를 잇다', 세대별 놀이문화로 교류하는 '시대를 잇다', 국가별 놀이와 이야기로 교류하는 '동서를 잇다' 등 3개의 주제로 나누어 보다 다양한 지역민들이 달서생활문화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6월 17일에 '취미를 잇다'를 주제로 개방된 달서생활문화센터에서는 달서구 내 다양한 동아리들이 모여 서로를 소개하는 라운드테이블과 아카이브전(사진 전시회), 동아리 공연 등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시대를 잇다' 프로그램으로는 세대별 놀이(팽이돌리기 게임, 댄스게임) 체험, 세대별 대표 댄스 배우기, 세대별 인기 영상물 상영, 달고나와 솜사탕 만들기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는 <2023 희망달서 대축제>와 연계되어 더 풍성하게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11월 18일에는 '동서를 잇다'를 주제로 세계 전래놀이 체험과 세계 악기 배우기 및 공예체험, 동화구연이 준비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달서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되며 생활문화센터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부디 <주말엔 생활문화센터로>를 통해 달서생활문화센터가 보다 널리 알려지고 많은 지역민의 이용으로 늘 북적이는 지역문화·예술 거점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를 남기도록 하겠다. "여러분, 생활문화·예술활동에 관심이 있지만 나에게 맞는 문화·예술활동을 찾지 못했거나 공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에게 달서생활문화센터는 늘 활짝 열려있으니 주말엔 생활문화센터로 꼭 와주세요!"

구분	내용
<b>취미를 잇다</b> 일시 6. 17. (토) 14:00 장소 달서생활문화센터 장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화모이름: 동아리 활동 및 구상권 소개, 동아리 활동정보 교류</li> <li>감성모이름: 참여 동아리 공연 (도화풍물동아리, 광미 트리를 모카르나, 세이(아름가리), 오카소리사랑, 벨리우지카)</li> <li>추억모이름: 달서구 생활문화 동아리 아카이브전</li> </ul>
<b>시대를 잇다</b> 일시 7. 15. (토) / 9. 16. (토) / 10. 14. ~ 15. (토~일) 14:00 장소 달서생활문화센터 장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봄모이름: 요즘 놀이 vs 옛날 놀이, 놀이와 게임으로 본 시대 흐름, 세대별 팽이 체험 및 경기, 댄스게임 체험 및 경기, 퀴즈: 요즘 신조어 vs 옛날 신조어</li> <li>봄으로이름: 세대별 대표춤 배우기</li> <li>추억으로이름: 세대별 인기 영상물 상영</li> <li>음식으로이름: 달고나와 솜사탕 만들기</li> </ul>
<b>동서를 잇다</b> 일시 11. 18. (토) 14:00 장소 달서생활문화센터 장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봄으로이름: 세계 전래놀이 체험</li> <li>봄으로이름: 세계 악기 배우기 및 연주, 공예 체험</li> <li>감성으로이름: 동화구연: 세계 전래동화</li> </ul>



낮부터 밤까지,  
오감으로 즐기는



## 2023 장미꽃 필(Feel) 무렵 축제

일상으로 복귀한 순간,  
자연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주었다

엔데믹 선언 후 사람들의 좁혀진 거리는 일상에 정겨움을 더해가고 있으며, 한동안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열렸던 축제가 정상적으로 열리면서 세상에 활기를 더해주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 3년간 비대면으로 열렸던 <장미꽃 필 무렵> 축제가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달서구 이곡장미공원에서 대면 축제로 열렸다. 3년간 세상은 변화무쌍했지만 이곡장미공원을 가득 채운 장미꽃은 변함없이 그대로였다.



<장미꽃 필 무렵> 축제가 매년 열리는 이곡장미공원은 성서에 즐비한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다. 주민들이 오고 가며 휴식을 취하기에 안성맞춤인 장소다. 주민들의 일상 가운데 위치한 이곳에는 매년 5월경 장미꽃이 만개하여 주민들의 일상에

마법 같은 향기를 더한다. 달서구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장미꽃에 문화라는 색을 입혀 주민들에게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돌아온 <장미꽃 필 무렵> 축제, 한껏 들뜬 마음을 안고 그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장미꽃이 이끄는  
환상의 세계로!

2023 <장미꽃 필 무렵> 축제는 '판타지 인 달서'를 주제로 펼쳐졌다. 3m가 넘는 커다란 인형들의 퍼레이드와 장미매직쇼, 장미벌룬쇼 등 다채로운 거리예술은 관람객을 환상의 세계로 이끌었고, 크로마 하프, 우쿨렐레, 통기타, K-pop 댄스 공연은 관람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로즈 플레이존에서 실시된 장미 팔찌 만들기, 장미 드로잉, 장미 종이접기 등 장미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도 반응이 뜨거웠다. 장미터널에는 아이들이 부모님께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가 전시됐다. 터널을 가득 채운 장미향만큼이나 아이들의 순수함과 가족 사랑이 가득 느껴졌다. 햇살을 머금은 장미도 예쁘지만, 달빛 아래 고요한 장미도 충분히 아름답다. 올해는 야간 프로그램도 구성해 장미꽃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야간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낮부터 밤까지, 오감으로 느끼는 장미는 <장미꽃 필 무렵> 축제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색다른 즐거움이다. 3년 만에 현장에서 관람객과 함께 호흡하면서 즐긴 2023 <장미꽃 필 무렵> 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했고, 공원을 가득 채운 장미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매년 장미가 만개할 즈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활짝 핀 장미보다 풍성한 행복을 얻어 가길 바란다.





## 가상 세계로 향하는 특별한 공간 달서 메타버스 체험관



###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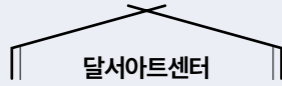
최근 곳곳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전시 공간, 체험관이 생겨나면서 메타버스는 팬데믹 시대의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미래 사회의 필연적 흐름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개발 초기, 게임에 국한되어 있던 메타버스는 업무, 교육, 공연, 홍보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현실에서의 경험과 근접한 가상 세계를 묘사하는 수준 높은 기술이 구현되고 있다. 달서아트센터에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특별한 공간이 있다. 이곳을 찾은 관람객은 울릉도에 가서 배를 타는 여정을 거치지 않고도 독도를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달서구와 독도를 잇는 이곳은 바로 <달서 메타버스 체험관>의 '독도 메타버스 미래교육학습관'이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022년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 사업'을 통해 구축돼 올해 3월 24일 달서아트센터 3층에 문을 열었다. '독도 메타버스 미래교육학습관'에서는 독도의 자연과 역사는 물론 독도 관광까지 메타버스로 즐길 수 있어 독도를 직접 찾아갈 여건이 되지 않는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독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준다. 자신을 닮은 아바타를 만들 수 있는 아바타 생성존, 자신이 만든 아바타로 독도를 둘러볼 수 있는 가상독도 실감 체험존이 있으며 메타버스 VR존, 실시간 영상존에서는 생동감 넘치는 독도의 현장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 실감콘텐츠로 느끼는 달서구의 관광·역사·문화

<달서 메타버스 체험관>으로부터 이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조만간 확대될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최근 들려왔다. <달서 메타버스 체험관>은 달서구의 주요 관광지과 지역 생태계를 주제로 한 실감콘텐츠를 통해 달서구의 관광·역사·문화를 알리고 주민들에게 디지털 전환시대의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게 된다. 실감콘텐츠 체험공간은 올해 9월부터 만나볼 수 있다. 메타버스는 공간과 공간의 물리적 거리를 허물어 특정 공간에서의 생생한 몰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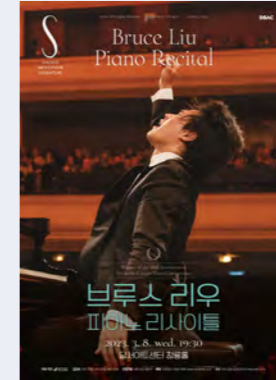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훌륭한 간접 경험의 기회가 되곤 한다. 메타버스의 잠재력을 알아본 사람들은 메타버스를 산업 전반에 끌어와 새로운 형태의 즐거움을 선사하면서 미래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달서아트센터도 신기술이 주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잊지 못할 재미와 감동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달서 메타버스 체험관>에서 달서구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실감나게 경험해 보자. 내가 알던 친숙한 달서구가 조금은 색다른 모습으로 느껴질 것이다.



시대가 열망하는 천재 피아니스트  
다닐 트리포노프 대구 첫 내한 리사이틀

러시아의 젊은 거장 다닐 트리포노프가 진취적인 음악 스타일과 초절정 기교로 차이콥스키의 음악부터 모차르트까지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넘나드는 뜨거운 음악적 경험을 안겨주었다.

일시 | 2023년 2월 15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 달서아트센터 청룡홀



쇼팽 국제 콩쿠르 우승자 브루스 리우,  
대구 첫 내한 리사이틀

조성진 이후 오랜 기간 끝에 탄생한 쇼팽 콩쿠르 우승자 브루스 리우의 첫 내한 공연이 달서에서 열렸다. 라모와 쇼팽 음악의 기존 해석을 뒤엎는 연주로 관객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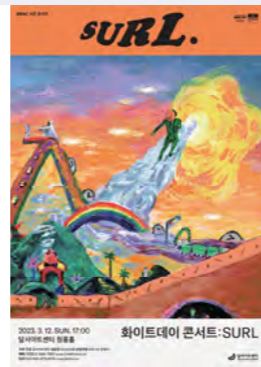
일시 | 2023년 3월 8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 달서아트센터 청룡홀



리투아니아 피아니스트 듀오 주보바스:  
울려 퍼지는 색채의 바다, 내한 공연

듀오 주보바스는 개성 있는 연주 스타일을 가진 리투아니아 피아니스트이다. 20세기 초 드뷔시와 추를리오니스가 작곡한 바다 주제의 교향시, 그리고 한국 공연을 위해 특별히 선곡한 이철우의 '피아노를 위한 아름다운 세상'을 들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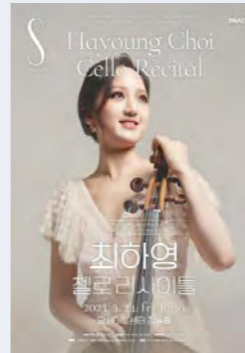
일시 | 2023년 2월 16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달서아트센터 와룡홀



이 시대 청춘  
자화상 밴드 설(SURL)의  
화이트데이 콘서트

국내 인디신의 급부상 밴드 설(SURL)이 20·30대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가져왔다. 몽환적인 음색과 리드미컬한 연주를 통해 잊을 수 없는 2023년 화이트데이의 추억을 선물했다.

일시 | 2023년 3월 12일(일) 오후 5시  
장소 | 달서아트센터 청룡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  
최하영의 첼로 리사이틀 개최

세계가 주목하는 신예 첼리스트 최하영이 낭만주의 거장 라흐마니노프부터 루토프와프스키의 현대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로 신선한 연주를 전개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현대음악을 중심으로 확장성 높은 음악 세계를 드러냈다.

일시 | 2023년 3월 24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 달서아트센터 청룡홀



4일간 펼쳐지는 피아노의 향연,  
피아노 위크 2023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11인의 정상급 연주자들이 4일간 피아노 위크를 펼쳤다. 바흐, 베토벤, 쇼팽, 슈만, 브람스 등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났다.

일시 | 2023년 5월 16일(화) - 19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 달서아트센터 와룡홀



세계 최정상 바이올리니스트가  
선보이는 완벽한 경지,  
힐러리 한 바이올린 리사이틀

완벽한 바이올리니스트의 표본이라 불리는 힐러리 한의 5년 만의 내한 공연이 펼쳐졌다.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테크닉으로 듣는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는 경이로운 감동의 순간을 선사했다.

일시 | 2023년 6월 1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달서아트센터 청룡홀

예술아카데미

수강생을 위한 전용 전시공간 「예술아카데미 갤러리」

달서아트센터 예술아카데미는 지난 2022년부터 별관 2층 휴식공간을 '예술아카데미 갤러리'로 탈바꿈해 수강생이 문화예술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기회를 제공하고자 완성된 작품들을 모아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예술 활동의 열정을 키우고, 달서아트센터를 방문해주시는 시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어 의미가 있다.

※ 예술아카데미 갤러리는 달서아트센터 별관 2층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제4회 예술아카데미 갤러리  
캘리그래피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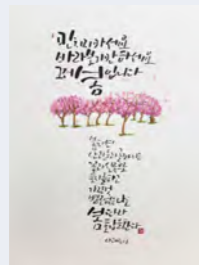
- 강 좌 명 캘리그래피
- 강 사 명 강명숙
- 전시기간 2023. 3. 2.(목) ~ 4. 29.(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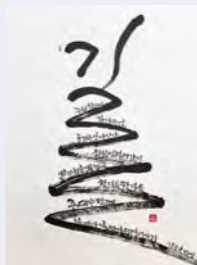
캘리그래피展



수강생 전현숙작 '행복'



수강생 박도연작 '그저, 봄'



수강생 김영민작 '가'

2023년도 상반기에는 캘리그래피(강사 강명숙), 공테연필초상화(강사 안연진) 강좌의 수강생(23명)이 참가하여 본인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솜씨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술아카데미에서는 앞으로 수강생들의 예술 활동에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함께 예술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이다.

제5회 예술아카데미 갤러리  
공테연필초상화展

- 강 좌 명 공테연필초상화
- 강 사 명 안연진
- 전시기간 2023. 5. 2.(화) ~ 6. 23.(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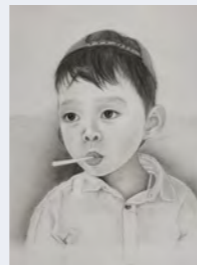
공테연필 초상화展



수강생 김윤정작 '우당탕탕'



수강생 서운정작 'My best friend'



수강생 김상화작 '가족'

달서문화재단



달서문화재단 미술품 대여사업  
「모두의 갤러리」

달서문화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미술품 대여사업 「모두의 갤러리」를 운영한다. 달서구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작가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구민에게 미술품 수요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참여 작품과 수요기관 모두 공모방식을 통해 모집되었다. 참여 작품은 지난 6월 26일 심의위원회를 통해 20개 작품이 선정되었으며 이 작품들이 전시될 달서구 내 공공기관 역시 모두 선정되었다. 다가올 8월부터 달서구 내 여러 공공기관(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에 20개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우리 가락과 함께하는 신명 한마당  
「2023년 신년음악회」

한국적인 정서로 노래하는 가수 장사익과 지역 출신의 미스트롯 정미애가 달서구를 찾아 새해 첫 시작을 열었다. 지난 1월 19일(목) 저녁 7시 30분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개최된 「2023 신년음악회」는 계묘년(癸卯年)을 맞아 힘찬 출발과 희망에 찬 기운을 전하고 2023년을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를 꽃피우는 한해로 발돋움하고자 마련되었다. 장사익, 정미애 뿐만 아니라 전문국악인들로 구성된 '영남국악관현악단(지휘 김현호), 김단희, 민정민, 강령탈춤 연구회 등 지역가수들도 함께 무대에 올라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흥과 희망, 즐거움을 선사했다.



달서가족문화센터

2023 달서가족문화센터 개관 5주년 기념주간 행사「문화가 꽃피는 소통의 장」

4월 12일, 달서가족문화센터가 개관 5주년을 맞았다. 달서구민 및 이태훈 달서구청장 및 김해철 달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윤지옥, 홍석준, 김용판 국회의원과 구의회의원들의 축하 속에서 5주년 기념식을 진행하였다. 기념식이 끝난 후에는 현대무용, 바이올린, 어린이 해금 등 달서가족문화센터 수강생 33명의 공연으로 발표회를 이

어갔다. 뿐만 아니라 4월 한달동안 수강생들 작품으로 꾸러진 전시회를 개최하여 연필 스케치, 민화, 수채화 등 총 10개 반의 77명의 작품을 전시하였다. 4월을 5주년 기념주간으로 삼고 '힐링', '소통', '공감' 세 가지 테마로 다양한 콘텐츠와 행사를 운영함으로써 달서구민, 수강생, 강사 등 모두와 함께하는 뜻깊은 5주년이었다.



여성 친화 프로그램, 힐링 브런치 콘서트

4월 3일 첫 번째 행사 「브런치 콘서트: The four men for heart」가 열렸다. 네 명의 남성 성악 앙상블 공연으로 센터 주 이용객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의 향연은 일상에서 벗어나 온전히 휴식할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었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다과를 함께하며 브런치 콘서트의 의미를 더했다.



다 함께 공감 치료, 가족 토크쇼!

기념주간의 마지막 행사 「가족 토크쇼: 동상이몽? 동갑이몽!」은 4월 18일 달서아트센터 와룡홀에서 개최되었다. KBS 공채 개그우먼 조송희, 김영희가 출연하여 기혼 여성들과 함께 육아 고민을 나누었다. 서로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관객들의 웃음이 만발하는 토크쇼였다.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행복한 내 일(my job)을 위한 도전

지난 2월 신달서여성새일센터가 집단상담프로그램 「내 일을 만나다, my job」 참가자를 모집했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일자리 정보 제공, 직업 선호도 조사를 위한 MBTI 성격 검사,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형식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신달서여성새일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여성 인력 향상에 힘을 쏟고 있다.



여성의 날, 대구시 기념행사

대구시는 '3·8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행사로 여성친화일촌기업과 가족친화기업 17개사 1천 200여 명의 근로자를 찾아갔다. 신달서여성새일센터 직원들과 대구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직접 기업을 방문해 커피, 쿠키, 빵과 꽃 화분을 전달하고,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과 남녀 근로자를 응원했다.



여성일자리 취업상담 서비스「굿잡버스」

굿잡버스가 5월 15일 달서구에 위치한 이마트 월배점을 찾았다. 굿잡버스는 구직자 개개인의 연령, 경력단절 기간 등을 고려해 1:1 맞춤형 취업 상담, 구인구직 정보 제공, 심리 및 노무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11개 기업체가 참여해 현장 면접 후 바로 채용하는 직접채용과 구직자를 해당 기업에 추천하는 간접채용도 동시에 진행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의 고민 해결에 앞장서 큰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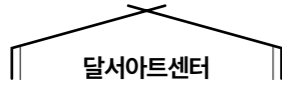


여성 인력 강화 직업교육훈련

신달서여성새일센터에서 4월부터 8월까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2023년 직업교육훈련 5개 과정을 운영한다. 올해 참여대상이 '경력단절여성'에서 '여성'으로 확대돼 재직 여성도 교육 참가가 가능해졌다. 교육과정은 한식조리 전문가 양성과정/현장맞춤 간호조무사 양성과정/회계·세무 전문사무원 양성과정/스마트 실버 맞춤형돌봄 전문인력 양성과정/온라인 스토어 창업 실무과정 총 다섯 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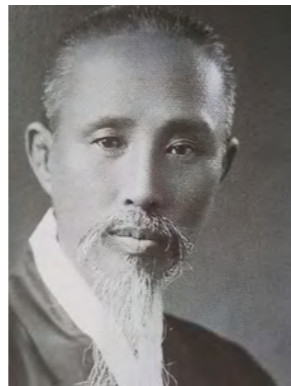
일시	2023. 11. 3.(금) ~ 4.(토) 금요일 19:30 / 토 15:00, 19:00
장소	달서아트센터 청룡홀
입장료	일반 30,000원
관람가	만 8세 이상
예매	달서아트센터(dscf.or.kr) 티켓링크(ticketlink.co.kr) 홈페이지
문의	053-584-8719, 8720

### 달서구 대표 문화 콘텐츠 뮤지컬 「월곡」

달서아트센터가 올해 3회째로 선보이는 뮤지컬 「월곡」, 2020년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리딩극 형태로 첫선을 보인 후 4년의 기간을 거치며 부족했던 부분들을 수정·보완을 거치며 보다 완성도 있는 모습으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지역 인물인 '월곡 우배산' 장군이 남긴 "의병군공책"에서 모티브를 얻어 역사적 인물과 사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혁이, 월이 등 가상인물을 통해 극적 요소를 더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극중 배경인 대구 비슬산의 암괴들을 무대 세트로 재현했으며 강렬한 전투신과 역동적인 안무가 더해져 뮤지컬 「월곡」만의 특별한 매력을 선사할 예정이다.

### 지역의 독립운동가 '향산 윤상태'를 조명한다 연극 「향산」

대구는 뿌리 깊은 도시답게 자랑스러운 인물이 많다. 달서아트센터는 일제 침탈에 맞서 민족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독립운동가 '향산 윤상태'의 업적을 조명하기 위한 창작 연극 「향산」을 낭독극으로 제작하여 첫 선을 보인다.



일시	2023. 12. 13.(수) 19:30
장소	달서아트센터 와룡홀
입장료	전석 무료
관람가	만 8세 이상
예매	달서아트센터(dscf.or.kr) 티켓링크(ticketlink.co.kr) 홈페이지
문의	053-584-8719, 8720

### 음악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소규모 클래식 콘서트 「Playlist : Untitled」

블랙박스 무대 위에서 감각적인 영상을 배경으로, 각 계절에 어울리게 커스텀한 향기를 맡으며 클래식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Playlist : Untitled」은 시각, 후각, 청각 등 공감각적으로 다가가는 소규모 콘서트로 음악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오직 50명의 관객만 함께할 수 있는 프라이빗한 콘셉트와 몽환적인 무대 분위기 속에서 아름다운 선율의 클래식 연주를 감상하며 계절의 향취를 느껴볼 수 있다. 관객들에게 공연을 간직한다는 의미로 이날 사용된 향을 담은 향수를 선물한다. 또한 프로그램은 사전 미공개로 신비감을 조성하며, 당일 배부되는 팸플릿을 통해 공개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특별한 순간을 선사하고자 한다.



	「Playlist : Untitled」, 가을	「Playlist : Untitled」, 겨울
일시	2023. 9. 20.(수) 19:30	2023. 12. 20.(수) 19:30
장소	달서아트센터 청룡홀	
입장료	전석 20,000원	
관람가	만 13세 이상	
티켓오픈	2023. 8. 23.(수) 14:00	2023. 11. 22.(수) 14:00
예매	달서아트센터(dscf.or.kr), 티켓링크(ticketlink.co.kr) 홈페이지	
문의	053-584-8719, 8720	

### 당신에게 보내는 내일의 희망, 유키 구라모토의 선율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소통하는 연주자이자 작곡자인 유키 구라모토는 따뜻한 서정성의 음악은 물론, 무대 위에서의 위트와 진심으로도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1999년 5월 첫 내한 이후, 매년 한국을 방문하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보인 그는 통역을 거치지 않고 연습한 한국말로 직접 곡에 대한 설명을 마이크를 통해 보내며 매 공연 새로운 편곡을 통해 자주 관람하는 팬들에게도 반가운 선물이 되는 공연을 준비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유키 구라모토의 마음을 담은 콘서트가 12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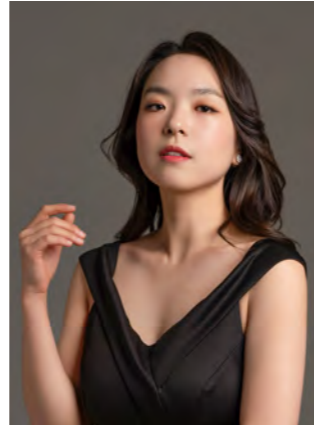
일시	2023. 12. 16.(토) 17:00
장소	달서아트센터 청룡홀
입장료	R석 70,000원, S석 50,000원
관람가	만 8세 이상
예매	달서아트센터(dscf.or.kr), 티켓링크(ticketlink.co.kr) 홈페이지
문의	053-584-8719, 8720





### 피아니스트 최혜리와 함께하는 연주가 있는 클래식 음악여행

빈 고전파 음악가 하이든과 모차르트, 낭만주의 음악의 거장 차이콥스키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의 시인 쇼팽과 피아노의 신 리스트, 재즈와 클래식, 영화음악을 넘나드는 현대 음악가 거슈윈, 엔니오 모리꼬네, 카푸스틴의 생애와 음악들을 피아니스트 최혜리가 직접 들려주는 음악을 감상하며 클래식 음악에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 기 간** 2023. 6. 13. ~ 7. 25. / 격주 화요일 15시 30분
- 6월 13일 | 빈 고전파 음악가 하이든과 모차르트
  - 6월 27일 | 낭만주의 음악의 거장 차이콥스키와 라흐마니노프
  - 7월 11일 | 피아노의 시인 쇼팽 그리고 피아노의 신 리스트
  - 7월 25일 | 현대 음악가 조지 거슈윈, 엔니오 모리꼬네 그리고 니콜라이 카푸스틴

**수강료** 3만 원(4회)

#### 예술인문특강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예술·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강좌

- **교육기간** 학기별 4~6회
- **교육분야** 클래식, 미술, 영화, 팝송 등
- **교육비** 3만 원~4만 원(강좌별 상이)

#### 취미특강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원데이클래스

- **교육기간** 학기별 1회
- **교육분야** 공예 등
- **교육비** 미정(강좌별 특성에 따라 상이)

### 성악가 구본광과 함께하는 오페라 일타강의

오페라의 본고장, 유럽에서의 오랜 생활과 화려한 연주 경력을 자랑하는 성악가 구본광이 전하는 오페라의 알쓸신잡(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잡학사전) 무대 뒤 제작과정과 오페라 가수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톡톡 튀는 센스만점 오페라 감상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이 될 오페라 일타강의를 만나보세요.



- 기 간** 2023. 7. 17. ~ 8. 7. / 매주 월요일 14시
- 7월 17일 | 오스트리아 오페라 “유쾌한 미망인(Die lustige Witwe)” / F.Lehar
  - 7월 24일 | 프랑스 오페라 “카르멘(Carmen)” / G.Bizet
  - 7월 31일 | 이탈리아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 / G.Verdi
  - 8월 07일 | 체코 오페라 “루살카(Rusalka)” / A.Dvorak

**수강료** 3만 원(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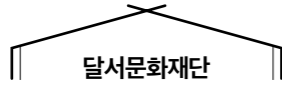
#### 예술실기강좌

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이 실현 가능한 12주 과정의 실기강좌

- **교육기간** 12주(봄: 3월~5월 / 여름: 6월~8월 / 가을: 9월~11월 / 겨울: 12월~2월)
  - **교육분야** 국악, 클래식, 실용음악, 댄스·요가, 미술·서예, 공예, 교양 등
- |         |   |       |                                      |
|---------|---|-------|--------------------------------------|
| - 국 악   | 민요와 장구, 가야금, 사물놀이, 팽과리, 풍물, 해금  | - 서 예 | 한글&한문서예, 수묵화&캘리그래피                   |
| - 한국무용  | 한국무용, 전통무용  | - 공 예 | 생활도예, 포크아트, 생활꽃꽂이, 닥종이인형공예, 생활한복&린넨옷 |
| - 클 래 식 | 색소폰,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성악  | - 요 가 | 필라테스 교정요가                            |
| - 한국무용  | 우쿨렐레, 통기타, 보컬트레이닝, 드럼, 가요교실   | - 댄 스 | 사교댄스, 댄스스포츠&소셜댄스, 벨리댄스, 라인댄스         |
| - 교 양   | 성인펜글씨, 영어회화, 일본어회화, 다도교실, 사진교실  |       |                                      |
| - 미 술   | 유화, 수채화, 천에 그리는 그림, 민화, 플러스펜 수채화, 색연필 일러스트&보타니컬아트, 기초소묘, 콩테연필초상화, 연필드로잉 |       |                                      |

※ 학기별 세부 강좌 상이할 수 있음





2023 달서생활문화센터 거점사업 III 달서문화재단 대구가톨릭대학교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 지구별 수호대

놀이와 만들기 활동으로 배우는 지속가능 발전

달서생활문화센터 장기점 (달서구 문화화랑길 160)

일자	일시	주제	프로그램	모집인원
1	7. 12. (수) 16:00	에너지	나는야 에너지 챔피언	매일 25명 (선착순 모집)
2	7. 19. (수) 16:00	생태	달서랑 나랑 함께하는 자연별 놀이	
3	7. 26. (수) 16:00	자원순환	자연이 지구를 어떻게 만드나요?	
4	8. 2. (수) 16:00	에너지	전기에너지, 나는 오늘 얼마나 사용했을까?	
5	8. 9. (수) 16:00	친환경소재	내 몸엔 플라스틱이 얼마나 들어있나요?	
6	8. 16. (수) 16:00	복합소재	나는 오늘 쓰레기를 시련 건다	
7	8. 23. (수) 16:00	환경오염	조물조물 삼투막과 물을 손수건 만들기	
8	8. 30. (수) 16:00	에너지	자연과 내가 만드는 전기	

참여 안내: 2023. 6. 16. (목) ~ 10시 / 참여대상: 6세 ~ 10세 / 참여비용: 참여 무료 / 접수 방법: 전화: 053-584-9988 / 신청: 053-584-9988 / 접수처: 달서생활문화센터 장기점 / 문의: 달서문화재단 홈페이지(dsc.or.kr) / 달서문화재단 홈페이지(dsc.or.kr) / 달서문화재단 홈페이지(dsc.or.kr) / 달서문화재단 홈페이지(dsc.or.kr)

### 기후변화를 조금이나마 늦추기 위해 우리가 할 일 「지구별 수호대」, 「슬기로운 친환경 소비생활」

익숙한 이슈가 되어버린 기후 변화,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놀이 및 체험을 통해 이론을 체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달서생활문화센터에서 준비했다.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을 대상으로는 「지구별 수호대」가, 가정에서의 실천 주체인 주부를 대상으로는 「슬기로운 친환경 소비생활」이 운영된다.

「지구별 수호대」		「슬기로운 친환경 소비생활」	
운영일시	2023. 7. 12.(수) ~ 8. 30.(수) (매주 수요일) / 16:00	운영일시	2023. 9. 6.(수) ~ 11. 1.(수) (매주 수요일) / 10:00
대상	6세 ~ 10세 아동	대상	주부 및 지역민
주요내용	문화-예술 활동으로 기후 관련 이슈를 학습	주요내용	실제 생활과 밀접한 이슈를 학습 및 관련 생활용품 만들기 체험
장소	달서생활문화센터 장기점	장소	달서생활문화센터 송현점
문의	053-584-8969	문의	053-621-6566

### 무더위 탈출 프로젝트 한여름 밤의 「소나기 콘서트」

(재)달서문화재단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함께하는 「소나기 콘서트」가 개최된다. '대프리카'로 불릴만큼 유명한 대구의 무더위를 함께 이겨내고자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콘서트이다. 이번 「소나기 콘서트」는 '희망찬 달서 여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음악과 함께 달서구의 명소인 달서 9경을 돌아볼 예정이다.



일시	2023. 7. 21.(금) 19:30
장소	코오롱 야외음악당
주요내용	전유진, 탄따라패밀리, 인간토 솔리스트 앙상블, 킹스턴 루디스카, 영남대학교 무용학과
문의	053-584-9712



### 「2023 희망달서 대축제」

달서구민들이 다양하게 즐기는 축제가 되기 위해 새롭게 변모한다. 2023 희망달서 대축제는 달서구민들이 문화와 놀이를 한껏 즐기는 축제가 되기 위하여 축제 명칭을 바꾸고 새로운 구성으로 선보인다.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통해 다채로운 문화와 만나고 화합하는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일시	2023. 10. 14.(토) ~ 10. 15.(일)
장소	달서아트센터 일원
주요내용	- 주민 참여 프로그램: 동별 대항전(달서 오징어게임, 트롯가요제 등) - 생활 문화 프로그램: 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및 생활문화센터 동아리 발표회 등
문의	053-584-9715



달서가족문화센터

우리아이, 여름방학을 부탁해! 「맘 놓고 맘 편하게 맡기기」



어린이집, 유치원 방학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특별한 여름방학을 선사하는 「맘 놓고 맘 편하게 맡기기: 우리아이, 여름방학을 부탁해」가 운영된다.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여름방학을 맞이한 유아(5세~ 7세)를 대상으로 마련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음악, 미술, 과학 등 요일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달서가족문화센터에 상주하는 보육교사가 직접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단순 돌봄 이상의 교육적 효과가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 확인 및 참여 신청은 달서가족문화센터 홈페이지(www.dsfcc.or.kr)를 통해 가능하다.

대상 5~7세(정원 10명) 장 소 3층 유아놀이방
접 수 온라인(www.dsfcc.or.kr) 달서가족문화센터 홈페이지 참가비 2만 원

여름학기 가족공연 「3인3색 피아노 시리즈: 올 댓 베토벤」

일 시 8. 23.(수) 19:30
출 연 피아노 남자은(대구시립합창단 상임 반주자), 첼로 배규희(대구 시립교향악단 단원), 클라리넷 정혜진(목관5중주 느루·피카소 앙상블 대표)
장 소 달서가족문화센터 4층 소공연장
접 수 달서가족문화센터 홈페이지 (www.dsfcc.or.kr)
문 의 053-632-3800
입장료 5천 원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의 재취업을 높이고 기업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현장소통을 강화한 구인·구직 쌍방향 공감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2023 대구여성 행복일자리 박람회」 운영

일 시 9. 1.(금) ~ 9. 2.(토) 10:00~17:00
장 소 대구EXCO 동관 5홀(※변경가능)
슬로건 나를 찾다, 일을 잡(Job)대 여성이 행복한 대구!
대 상 지역 내 취업희망 여성 및 채용 기업 누구나
내 용 취업상담, 현장면접, 새일센터 및 사업홍보, 부대행사 운영 등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기업체 탐방」 운영

일 시 7~11월 1회 예정
장 소 지역 내 여성구인 기업체 1개소
대 상 새일센터 구직자 중 희망자
내 용 기업 및 주요업무 소개, 라운딩, 실무진 면담 및 질의응답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위한 「양성평등 인식개선교육」 운영

일 시 7~12월
대 상 지역 내 여성 구인기업 (새일센터 연계·협약기업)
내 용 법정의무교육, 종사자 의사소통, 힐링 교육 등 지원

근무환경 개선지원 「기업환경개선사업」 운영

일 시 7~12월 중
대 상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채용(예정) 및 창업기업, 일촌협약 기업 등
내 용 기업 시설환경개선 및 창업기업 초기 물품 구입 등 환경개선을 통한 여성친화 근무환경 조성 지원

「슬기로운 직장생활, 즐거운 일터 만들기」 운영

일 시 7~11월
대 상 달서구 지역 내 취약계층 근로자
내 용 취약계층 근로자 맞춤형 노무·취업 상담 및 소통·대인관계 역량강화 교육 지원

취업·직장적응 지원 「구직·취업자 동아리&간담회」 운영

일 시 7~11월 중
대 상 새일센터 구직 등록 및 취·창업자 대상
내 용 취업역량개발을 위한 동아리 지원, 간담회(1회) 등을 통한 구직·취업활동 응원, 고용불안 및 스트레스 해소, 고용유지 격려 기회 마련





청년은 문화의 씨앗을 뿌리고,  
지역은 청년이 뿌린 문화의 싹을 틔운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울창한 문화의 숲이 기다려진다.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 □ □ □ □

우 표

**받는 사람**

(재)달서문화재단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회관길 160 (장기동)  
2층 문화정책실  
42699

### <달서문화만개> 독자퀴즈

1. 달서구 청년들이 건강한 청년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맞는 청년 사업을 스스로 발굴·제안함으로써 구정에 참여하는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무엇일까요?

- ① 청정기획단 ② 청청기획단 ③ 청년기획단 ④ 청춘기획단

2. 인공지능이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사람과 대화하듯 답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문화예술계에 뜨거운 이슈인 프로그램의 이름은?

- ① 오픈AI ② 인공지능 리터러시 ③ 챗GPT ④ 딥러닝

#### 퀴즈 응모 방법

- ① 퀴즈 정답을 표시한 후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하기
- ② 010-6690-1770으로 [이름, 연락처] 남기기

응모기간 **11월 17일까지**

상품 퀴즈 정답을 보내주신 다섯 분에게 달콤한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개인정보 사용 및 제공 등에 관한 동의 동의 동의 안 함

\* 수집된 개인정보(이름, 연락처)는 <달서문화만개> 발송 및 당첨자 경품 지급 행정 처리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처리 후 일괄 삭제합니다.

절취선 ✂

### <달서문화만개> 구독 안내

#### 구독신청

- ① 달서문화재단 홈페이지 (www.dscf.or.kr) 접속
- ② 커뮤니티 바로 가기
- ③ 달서문화만개 매거진
- ④ 구독 신청, 주소 변경, 구독 해지



### 독자 설문 조사

❶ 이번 호 <달서문화만개>에서 아쉬웠거나 보완했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❷ 다음 호에서 소개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독자 설문을 작성하여 11월 17일까지 보내주시면 다섯 분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주말엔 생활문화센터로

# 문화이음소



일시  
7. 15. (토) / 9. 16. (토) /  
10. 14. ~ 15. (토~일) 14:00

장소  
달서생활문화센터 장기점



일시  
11. 18. (토) 14:00

장소  
달서생활문화센터 장기점

구분	내용
몸으로 이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즘 만들기 놀이 vs 옛날 만들기 놀이</li> <li>• 놀이와 게임으로 본 시대 흐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별 팸이(줄팸이 vs 파워블레이드) 체험 및 경기</li> <li>- 댄스게임(DDR vs 저스트댄스) 체험 및 경기</li> </ul> </li> <li>• 퀴즈: 요즘 신조어 vs 옛날 신조어</li> </ul>
춤으로 이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별 대표춤 배우고 슷품 영상찍기</li> </ul>
추억으로 이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별 인기 영상물 상영</li> </ul>
음식으로 이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달고나와 솜사탕 만들기</li> </ul>

구분	내용
몸으로 이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전래놀이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 보틀 위에 코인쌓기</li> <li>- 일본: 다루마오도시</li> <li>- 베트남: 따가오</li> </ul> </li> </ul>
손으로 이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악기 배우기 및 연주(젬베, 카혼 등)</li> <li>• 공예 체험(인디언모자, 걱정인형 등)</li> </ul>
감성으로 이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화구연: 세계 전래동화</li> </ul>

문의 053.584.8969